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는 자

뒷표지 텍스트:

인류는 사랑의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존재하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입니다"(요일 4:8).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아들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연구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 지위, 사명, 사역, 희생을 통해 우리는 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 전부터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다음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의 삶을 위해 우리를 모든 악에서 깨끗하게 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사 모든 것보다 더 큰 축복의 천국을 누리게 하소서
기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듣지도 못한 것과 땅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 것"
사람의 마음"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분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고전 2:9).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참된 성품이 드러날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지식이 세상에 알려지면 모든 인간은
그분을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은 훌륭하고, 설득력 있고, 매혹적이고, 매력 있는 것에 저항하지 않더라도
그분의 사랑의 영향력을 감싸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느니라" 이사야. 11:9. 이 책은 이 말씀을 성취하는 데 기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자에게 현재까지 계시하기를 기뻐하신 것을 제시한다.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분의 사랑의 나타남
우리 시대까지. 그것을 읽으면 진실한 사람이 매일 물놀이를 하려는 동기를 확실히 갖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계시의 끝없는 바다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영생은
이것은 그들이 당신, 당신만을 유일한 참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보내셨다"(요한복음 17:3).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머리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여러 이야기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성경, 특히 구약과 묵시록의 예언. 그리고 이것은
본문에 나타난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찾는 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분과 그분의
이 구절에 제시된 작업을 통해 모호했던 것이 명확해지고 밝혀질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하나님의 사업의 성격에 관한 진리입니다. 그러면 자비와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오랜 세월 이래로 모든 목적에 있어서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만세까지 영원하며 또한 그의 정사와 그 지혜를 나타내느니라
그것은 모든 창조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완벽한 적합성입니다.
이 책의 메시지가 여러분이 이러한 현실에 눈을 뜨고 그분께 충성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저자의 진심 어린 바람입니다. 당신이 읽는 동안 신의 축복이 있기를!

소개

유래에 대한 폭로,
그리스도의 본질과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역.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의 깊이는 세상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이해 능력은 확실히 연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 영원히 구속함을 받았나니 그러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는 있습니다
오늘날 이해한다면 사도 시대부터 숨겨져 있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알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고 있는 휘장을 제하라
계획하고 구원받으세요. 이 책에서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들 중 일부를 폭로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나 자신을 드러내십시오. 기록되었으되 "숨겨진 것은 사람을 위하여 있느니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러나 계시된 것은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29:29. "무슨 일이 있었나요?
원칙은 우리가 들은 것과 우리 눈으로 본 것과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손으로 느낍니다.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우리는 그것을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니 곧 생명이니라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영원하신 이로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니라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들도 전합니다. 이는 여러분도 친교를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요한일서 1:1-3.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알자"고 권고합니다. 그래서
검색한 결과 "그는 비처럼 우리에게 임하시며 땅을 적시는 늦은 비처럼 오시리라"고 했습니다.
지구." 오세. 6:3. 우리는 성경의 각 구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

각 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드러났다는 점을 분명히 할 가치가 있습니다.
인간을 "늦은 비"를 받게 하는 것은 단지 따르는 것만이 아닙니다 . 에서
천 페이지가 넘는 성경에는 영혼의 온갖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팅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분의 양들 각각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녀가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그녀의 특별한 결점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닮아 품성을 완성하라. 이 책의 목적은 당신의 삶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완덕을 향한 여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동일한 추구를 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행했고, 그 결과 장(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검색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와 그리고 이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비처럼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으니라." 그럼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제1장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영원의 날에 있을 그분의 목적과 약속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시 90.2. 시간이 있었지, 영원 속에
신만이 존재했던 과거. 그리스도의 기원은 나중에 일어났습니다.
영원의 날에도.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비록 작을지라도
유다 천만인 중에서 이스라엘의 주가 될 이가 너희에게서 나오리라 그의 근본은 이러하니라
옛날부터, 영원의 날부터." Miq. 5:2.

내가 아직 동반자도 없이 영원토록 혼자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미래. 그분은 자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언하십니다. "나는 … 처음부터 종말을 알리는 하나님이니라.
처음부터 아직 이루지 못한 일이 있을 것임이요" 이사야. 46:9, 10. 그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느니라." ROM. 4:17. 그러므로 나는 그 후에 알았습니다.
지능적인 존재와 그들이 거주할 장소, 즉 하늘, 우주, 행성을 창조합니다.
존재의 질서(일부 천사와 인간)가 그분의 뜻에 반항할 것입니다. 그것은
반란을 일으키면 그들은 회복 불가능한 사형 선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어쩌겠는가?
나에게 죄를 짓는 것은 네 영혼을 해칠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모두 죽음을 사랑한다."
잠언 8:36.

그분의 정부에서 그분의 뜻은 율법이 될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 즉 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율법의 표현이며, 그분 자신의 성품과 일치할 것이며,
그것을 전사한 것으로 간주된다.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요" 요한일서 3:4.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
는 피조물의 의지가 구체화된 존재입니다. 피조물이 그분의 뜻을 거스르는 반역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왕국에 속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소망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권이나 한계는
정부는 우주 전체, 즉 모든 것과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생물이 그 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나님 정부의 한계.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이까"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어디로 도망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보라
당신도 거기에 계십니다. 그가 아침 날개를 치시며 바다 끝에 거하실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 139:7-10. 단지
죽음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왕국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결론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또는 쓰여진 대로 "급여" 또는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죄”에 대한 보상은 사망입니다(롬 6:23). 죄인이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영원히.

창조주의 정부는 죽음 없이, 죄 없이만 안정될 것입니다. 또는
즉, 그분의 피조물이 암묵적이고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했다면 말입니다. 존재
생각이 많고 똑똑한 사람들은 오직 사랑으로만 그러한 충성심을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누구인지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요일 4:8). 하지만 당신의
피조물은 그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창조한 작품을 통해 자신을 알리실 것입니다. 영형
사도 바울은 훨씬 후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라…
그에게 표현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로 말미암음이니라
영원하신 능력은 그의 신성이신 만물을 통해 깨닫고 뚜렷이 보여
생성됩니다.” ROM. 1:19, 20.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가운데 살고 있으며,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의 인간 후손들은 죄를 지을 것이며 그들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질 것입니다.
그들.

죄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즉각적인 존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기 전에. 두 번째는
그의 부재 - 하나님의 사랑이 부분적으로 표현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게 더 나을 거야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떤 천사들은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고, 사탄은 한때 빛을 전달하는 루시퍼였으며, 날개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천사였습니다. 이었다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그분께 더 가깝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이었으니
보호하라. 내가 너를 세웠다.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돌 가운데에 계시더니
당신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신은 창조되던 날부터 당신의 길에 완전하셨고
네게서 불법이 발견될 때까지.” 에즈. 28:14, 15. 반역자는 알고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 그리고 당신의 눈앞에 나타난 그분의 모든 사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의 지혜로운 뜻을 거스렸으니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더라
죄인이 순종으로 돌아오도록 확신시키기 위해 자신을 나타내실 수 있었습니다.
자발적인. 그러한 반란은 회복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단 그와
그들의 천사들이 그들의 위치를 확고히 하였으므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아니요
반역한 천사들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이 부분적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훌륭했습니다. “에덴”은 낙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광스러운 형태는 하나님의 성품의 작은 측면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동일한 부분 시연. 인류의 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뱀이 그 교활함으로 하와를 속인 것 같이 그도 그러할까 두렵습니다.
너희 감각도 어떤 식으로든 부패하게 하라”(고후 11:3).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천사들과는 달리, 하와와 그가 낳은 모든 남자들은 오늘날까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에게 반항하고 있는지 아주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위해
그들의 충성심을 되찾고, 기만 행위를 취소하고,
하나님의 참된 성품을 드러내신다. 이 계시에 직면하여 남자들은
그들은 그분의 정부와 그분의 율법에 다시 순종하고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은 이 계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에 제시될 것입니다.

어떻게, 어떤 대가를 치르고 남성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까? "영형
죄의 삯은 사망이니라"(롬 1:1). 6:23. 오직 하나님 정부의 안정성
위반자에게 형벌을 적용함으로써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위해서는
살 수는 있겠지만 일단 죄를 지으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 죄를 위해 죽어야 합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고 누군가 그를 위해 죽으면;
그러면 사람은 구원을 받고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은 멸망하게 됩니다. 한 생명은 다른 생명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만약에 하나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잃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닐 것입니다. 저장이 가능할까요?
야, 아무도 잃지 않고? 예, 하지만 누군가가 죽을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부활하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죽으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불멸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유일하신 지혜의 하나님께… 불멸이 있고 거하시는 이에게만 있느니라
접근하기 어려운 빛 속에서; 그 사람은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자니라"(딤전 1:17; 6:16).
인간을 위해 죽으신 후 자신의 의로 부활하실 수 있는 존재, 즉 구세주를 존재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존재는 피조물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지적 존재는 "a"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창. 1:26. 그러나 그와 동등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신적인 성품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조물이 충만함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로부터. 그러므로 피조물이 죄인인 인간을 위하여 아무리 기꺼이 죽으려고 하여도
무지 또는 성격에 대한 부분적인 무지로 인해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피조물의 최고위인 천사도 그 빛을 피하지 못하느니라
규칙. "사람이 창조주보다 더 깨끗합니까? 그 다음에
그분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신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천사들에게서 어리석음을 찾으십니다"(욥 4:17, 18).
만일 그분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 자신의 의로는 부활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법이 요구하는 범위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계를 보았으나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시 119:96). 법은 표현이다
신성한 성격의.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법의 주체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직 한 존재, 즉 인격의 높이를 지닌 존재만이 부활할 수 있습니다.
법과 동등하다;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 사항을 전체적으로 충족할 만큼 높았습니다.
그 폭. 그는 반란에 동조하지 않았으며,
무지해서라도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죽은 후에 그분의 의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분의 율법을 악화시키지 않고
정부.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이므로 성품의 거룩함은
이 존재의 존재는 하나님 자신의 존재와 동일해야 합니다.

이 관찰로부터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해결책을 고안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라 이는 하나님이 아니시므로 불멸의 몸이 아니시니
죽으시고) 그분과 동등한 성품의 거룩함을 소유하셨습니다. 여기 지구에서 우리는 그것을 관찰합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로부터 성격 특성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드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자연적인 것을 통해 우리는
영원 전부터 그분이 하신 일을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신 경우, 전달
그분의 사업은 모두 완전하므로 품성이 완전할 것입니다(신 32:4). 그래서 아들은
성부의 성품은 성부의 성품과 동일하며, 성자의 뜻은 그분의 뜻과 완벽하게 일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 율법인 것처럼 아들의 뜻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처럼
그분의 아버지는 두 사람이 함께 창조할 존재를 위해 율법을 주시는 분이실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명확히 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 여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나는 여호와이다.
모든 육체의 하나님; 나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Jer.
32:27. 그분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번식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둘의 결합. 그러나 창조주이신 그분은 자신의 몸에 부과하신 제한을 따르실 것입니까?
생물? 우리는 여성의 조각상을 조각한 예술가가 다음과 같다고 결론짓는다.
여성의 조각품만 만드는 데 국한되어 있고, 여성의 조각품은 만들 수 없습니다.
남자들? 즉,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과 생각에 있어서 제한을 받으시겠습니까?
창의성과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분은 그분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 길은 나의 길이 아니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높아.” 이사. 55:8, 9. 더욱이 그분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십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합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또한 “아버지”의 신체 일부에서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 식물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번식을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른 것을 생성할 수 있다
자신의 조각에서 나온 새로운 것. 나뭇가지를 떼어 땅에 묻어두세요
그리고 그는 새로운 식물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여러 식물이 다음에서 "자식을 생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점의.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번식할 수 있는 식물을 창조하셨다면,
그는 또한 원할 경우 이 수단을 통해 아이의 아버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태초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영원 과거에 아직 홀로 계셨을 때,
그 모든 것. 인간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했고,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죄를 지은 후에 아들을 낳았다면. 이 아들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질 것입니다.
그분을 대신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음의 번역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크리스토스”를 가리키는 메시아 용어입니다 .

더 나아가 하나님과 동등한 성품을 상속받아 살아감으로써
사람들은 그분을 그들에게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분의 아들의 인격으로 사람들을 아십시오. 그리고 남자들이 계시를 받았을 때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분을 아시고 그분의 구원을 선택하시며 그분의 백성이 되실 수 있으셨습니다.
왕국, 영원한 죽음을 피하십시오. 그리고 남성들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지적인 존재들의 질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더 잘 이해할 것입니다
피조물, 메시아,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삶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들을 창조주와 연합시켜 줄 사랑의 띠는 다음과 같이 강화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 거대하고 충분한 것에 대해 더 많이 연구하고 배웠습니다.
이는 그분의 정부의 영원한 안정과 인류의 완전한 행복을 보장할 계시입니다.
그의 모든 피조물.

미래의 죄인들에게 구원의 약속이 주어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는 메시아가 되실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므로 온 우주 피조물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을 기반으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날에”(미 5:2) 탄생하셨지만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이 존재 하기 이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엡 1:1). 3:10, 11.

결과적인 진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든
그분의 피조물, 즉 그들이 거주하는 우주는 그리스도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Apoc)임을 이해합니다. 3:14; 즉, 원리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하고 구원하려는 그분의 영원한 목적에서 비롯됩니다.
그분의 희생과 사역을 통해 모든 사람의 영원한 행복을 보장합니다.
아들. 같은 의미에서 “만물이 그 안에서 창조되었느니라” 골 1:14; 즉, 모든 것
창조되었거나 존재하도록 고안된 모든 것의 기초는 그리스도였습니다. 만약 그가 아니었다면
생성되면 아무것도 생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주와 존재는 보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 그러므로 “그가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요한복음 1:3).

우주와 존재의 창조는 단지 세대나 세대에만 기초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존재. 그것은 또한 그분의 사명과 성육신과 성육신의 계획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을 위한 그분의 희생.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에프. 3:9. 이 구절에서 사도는 아들의 개인적, 육체적 참여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구와 다른 행성의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은 그가 성육신하여 이 세상에 오셨을 때부터 주어졌습니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그때 천사가 말했습니다.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이라 하리라.
예수." 루크. 1:30, 31.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말하면서,
바울은 창조의 생존 가능성이 재림의 약속으로 인한 것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분의 희생의 아들입니다.

인간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프로젝트의 기초, 곧 초석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다른 누구도 아닌 “모퉁이의 머릿돌로 두신 돌”이십니다.
(마가복음 12:10), 교회는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지정된 통로입니다.
지상의 구원의 메시지에 대한 지식이 교화되어야 합니다.

이 놀라운 계획의 맥락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왜곡,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하나님의 공동 계획으로 무한히 전가시키는 것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피조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우리는 독생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선재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니라
지상의 그리스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피조물을 창조주의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그 남자
흠 없고 완전하며 축복받은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하여 불순하고 죄가 많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설치된 닻인 참
돌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위엄을 옮기시며
하늘과 그 자리에 "조약돌"을 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이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18에서. 원문에서: “내가 또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돌)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
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큰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작은 돌”로 바꾸는 것은 무한한 위대함을 폄하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보좌에 계신 아버지 옆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순결함은
평범한 사람, 타락한 인류에게 공통된 자연적인 사악함의 참여자.

이제까지 드러난 내용을 이해하고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엡 1:1). 1:3, 4. 그분은 우리를 생각하셨고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향하여 영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아들. 우리가 본 바에 의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은 바로 2천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영원 그 자체를 통해서
나중에 사람이 되실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에 대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습니다. 따라하지
우리의 행위가 오직 그의 뜻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대로 한 것이니라
예수여, 창세 전부터” (딤후 1:8, 9).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때 참되신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였으므로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느니라.” Jer. 31:3. 그리스도는 “그분의 사랑의 아들”이시다(골
1:13); 그분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고 지금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분입니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전체 우주.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우리 존재의 보증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참된 성품을 계시하시는 분. 우리 구주시요 영원한 중보자시라
은혜 언약에 대하여; 화해 약속의 영원한 보장
죄로부터의 자유와 미래의 영생을 위해 영원하신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요일 5:2).

사람의 구속의 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다. 그는 더 나을 수도 있다
영원 속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의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에 대한 계시에 기초하여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제 2 장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구원의 대가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고난.
피조물에게 주신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습니다.

이는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에 걸쳐 확립된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말씀하실 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빛이 살아있나요? 어둠이 있을 곳은 어디인가? 당신이 그들을 당신의 집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제한을 두어 집으로 가는 길을 알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물론 당신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때 태어나셨
고 당신의 날 수가 길었기 때문입니다!" 욥기 38:4, 19-21. 다음이 분명하다.
본문은 욥을 언급하지 않으며 인류의 아버지인 아담도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지구를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맙소사, 그렇습니다. 그는 그랬습니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요한복음 1:2.

나중에 잠언에서 그리스도 자신이 그곳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고전 1:24, 31)는 그가 영원의 시대에 태어났다고 선언했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사역이 시작될 때, 그분의 가장 오래된 사역 이전에 나를 소유하셨다. 부터
영원은 태초부터, 땅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세워졌느니라. 있기 전에는
심연에서 내가 태어났고, 물이 가득한 샘이 있기 전에. 전에
산이 생기고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태어났다. 그는 아직 그 일을 하지 않았다
땅도, 궁창도, 세상의 티끌의 시작도 그러하니라." 잠언 8:22-26. 그 다음에,
그분은 태어나신 후 만물 창조에 하나님과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하늘, 거기 내가 있었다..." 잠언. 8:27.

이미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서의 사명을 완수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세상에 오기 전에 태어난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은 내가 왕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내가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니라" 요한
18:37. 정보의 순서에 유의하십시오. 먼저 그분이 태어나셨습니다. 그 후 세상에 왔습니다.
첫째, 영원 과거에 그분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에 그는 세상에 왔습니다.
마리아의 자궁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확증하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문자 그대로의 탄생으로, 그분의 기원을 천사의 기원과 구별하며 후자는 다음과 같이 창조했습니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어느, 존재
그 영광의 광채와 그 본체의 형상이 더욱 뚜렷하도다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천사들보다 뛰어남이라. 왜냐하면
천사 중에 누가 말하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느냐? 그리고 다시: 나는 당신을 위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 사람이 내 아들이 되겠습니까?" 히브리어. 1:1-5. 여기에 언급된 기능만
문자 그대로의 아들: "아버지 이름의" 상속자; "아버지에게서 나신"; "익스프레스"가 되는 것
그분의 인격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없기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는 방법.

일단 당신이 그리스도가 문자 그대로의 아들이라는 완전한 증거를 보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로서 난 우리는 세상 끝날에 있던 곳으로 돌아갈 위치에 있습니다.
이전 장. 우리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했습니다.
피조물과 그들을 다스릴 정부에 대한 하나님의 기초는 모두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 그러나 그 사건 당시 이 계획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 속에만 존재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신은 혼자였습니다. 이 현실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의 문자적 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 안에 있었으니 하나님은 말씀이시니라"(요한복음 1:1). 나는 그것이 다른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안다.
그것은 현대판 성경에 있습니다. 현대 버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왜곡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래의. 단어별로 번역된 그리스어 텍스트를 참조하세요.

ν ν λ γο κα λ γο ν πρ τ ν θε ν κα θε ν λ γο
ρχ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안에 계셨으니 하나님은 말씀이시니라

원문의 뜻은: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세상에 계신 "말씀"이셨다.
원칙. 그리고 그가 혼자였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대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출산 후
아들아,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이제부터 그분의 대변인이 되도록 결정하셨다. 단위는
그들 사이의 생각과 목적은 너무나 완벽해서,
말씀은 생각을 위한 것이요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위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성경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존재로서: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요한복음 1:14).

그리스도가 말씀이셨다는 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요한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
1:1로 그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해보세요. 본문을 다시 살펴보자
원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 안에 계셨으니, 하나님은 말씀이시니라."
이제 이 구절 중간에 있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말씀이 하나님 안에 계셨으니". 이건 없어요
마지막 단어와 같은 의미: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이셨다" (요한복음 1:1). 유일한 이해
가능한 것은 말씀(그리스도)이 하나님 안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만 계셨을 때
나는 하나님 안에 있었다 . 그분의 마음 속에 있는 계획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의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인'은 '내부'라는 뜻이다. 본문은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가 다음에서 태어났다고 표현합니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 즉 하나님의 몸에서 가져온 조각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이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준; 저희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서 온 줄을 참으로 알고 믿었나이다
네가 나한테 보낸 거야." 요한복음 17:8. “나는 당신을 떠났다”라는 표현은 “나는 당신을 떠났다”는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존재”, 이는 “당신이 나에게 보냈습니다”라는 단어로 순서대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주의하세요
정보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 과거에는 먼저 "나는 당신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럼 "나야.
보냈어?" 그분은 영원의 날에 하나님의 몸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에게 보내졌어
약 2천년 전.

비록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지만 그분의 태에서 하나님과 같이 지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여자는 아기를 안고 있다. 왜냐하면 그녀는 남편과의 연합 없이 혼자서 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없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합이 인간의 아이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아들은 오직 그분에게서만 태어나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최고의 것으로 입증된 기록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예: “그때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은 깊은 잠에 빠져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빗대 하나를 가져다가 닫으셨다.
대신 고기.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아담을 지으시고
여성; 그리고 그것을 아담에게 가져왔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내 육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불릴 것이다.” 장군. 2:21-23.
하와는 아담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둘 다 뚜렷하고 보존적이지만,
각자는 자신만의 개성을 갖고 있었고, 인간이라는 동일한 본성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만들어졌다
살과 뼈의.

그런데 아담이라는 이름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그 기원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인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세대에 관한 책이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날에
사람이 그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느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부르시고
그들의 이름은 아담이라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니라.” 장군. 5:1, 2. 하나님은 둘 다의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아담과 이브(Adam and Eve)는 “Adam” 또는 사람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는 자신의 평등을 언급했다.
육체적 본성, 성격, 목적 - 둘 다 인간이었고,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창조주 자신은 그분으로부터 성품을 물려받았으며 그분의 목표에 일치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조화롭게 살았으며 그들의 집인 에덴동산을 돌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예는 그리스도 탄생의 신비를 밝혀 줍니다.
영원의 날. 하나님은 아담의 몸 일부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갈비뼈는 가슴에 위치합니다. 이것은 “독생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아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알고 있고
창조된 만물을 보면 드러나느니라”(롬 1:19, 20). 존은 이렇게 말했다.
독생자”는 “아버지 품속에”(요 1:18) 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창조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아들은 자신이 한 것처럼 가슴 높이에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제거했습니다.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에게서 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는 그것을 발에서도 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가슴으로 하사 자기와 동등한 위치로 높이려 하심이니라
같은. 이 진리에는 매우 인상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신이 있을 때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창 2:21). 그
갈비뼈를 제거하는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마취를 시켜주었지만,
나중에 그의 동반자를 만나는 기쁨. 하나님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를 마취시켜서 그의 몸의 일부를 제거하고 그의 고통을 완화시키십시오.
상처 있는 곳에서 아들을 낳으라.

한 문신 예술가는 사람이 몸을 움직이는 곳 중 하나가 가슴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문신을 할 때 더 많은 고통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가슴에서 한 조각을 취하여
우리가 가장 고통을 느끼는 곳.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느꼈던 육체적 고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창 1:26). 이 모든 것은 심지어
우리가 아직 창조되었다면 죄를 지었을 것이며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신이시여, 안으로
영원 전부터 자신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준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아들을 낳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주를 제공하실 수 있기 위해서는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언제
과거의 영원을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희생적인 사랑의 계시를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8. 그리고 "사랑은 갈망을 견디느니라"(고전 13:4). 그는 자신을 희생했기 때문에
영원부터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습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1:3.

창세기 1장 26절에 선언된 하나님과 우리 몸의 "모양"으로,
우리는 그분이 가슴의 한 부분을 취하심으로 그분의 몸의 일부를 취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에 가까웠습니다. 심장은 사랑과 가장 관련이 깊은 기관이다. 이것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미래에, 즉 오늘날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비스러운 희생은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사랑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그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원 과거에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의 사건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느니라
우주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 주소서.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안에 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롬 8:39).

이 계시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바울의 말을 더 명확하게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으니…
자기 뜻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딤후 1:9)
그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약속하셨다고 말합니다.
(디도후서 1:1, 2). 즉, 영원 속에서 우주와 시간 자체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제사로 우리 소망의 기초석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리고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죄 용서와 영생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영형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인간 아버지와 어머니는 침대, 옷, 침실을 갖춘 라에트를 준비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작은 아기를 위해, 태어나기 전에 구입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우리를 위한 무료 아기옷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신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다지 귀한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은 한 순간도 하지 마십시오. 너
그리고 나는 사랑받고, 소중해지고, 기대되었습니다. 시편 필자가 이렇게 말한 바와 같습니다.
내 몸은 아직까지 형성되지 못하였거늘 주의 책에 이 모든 것이 기록되었나이다
날마다 형성되나 그 때에는 하나도 없었느니라"(시편 133:16).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리겠습니까? 죄의 길, 율법을 범하는 길에서 떠나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를 섬기려 하심은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니라
당신의 정부는 확실히 우리에게 최고가 될까요? 우리는 그분의 계명(출 20:3-17)에 표현된 그분의 뜻과 일치하게 우리
의 삶을 정돈할 것입니까? 우리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옛 생활, 반역? 그녀에게 죽자! 우리의 작품을 고려해 봅시다
불순종은 있는 그대로 쾌락이 아니라 가증스럽고 정당하지 못한 행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처음부터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이를 거역하는 것
영원! 전혀 중요하지 않은 취미와 실제 의미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를 섬기기 위해 사는 것과 비교됩니다! 왕국의 주제에 대해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라. 하지만 말하자면
살아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롬. 6:10.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따라서 독생자)에게서 나셨고, 그분 자신을 위한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분을 사람들에게 넘겨주셨을 때만이요, 사람들이 땅에 오기 오래 전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16).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땅의 물보다 깊으니
대양. 그 모습을 보려면 셀 수 없이 많은 다이빙을 해야 합니다.
모든 차원에 숨겨진 경이로움. 그리고 우리는 챕터 A에서 다음 작업을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의 성품과 영광과 위엄을 연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희생의 크기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아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3 장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성품과 영광과 위엄.

먼 영원에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히브리서 1:1). 1:5. 그분은 “그분의 본체의 형상”이셨습니다.
1:3. “표현된 형상”이라는 용어는 예수께서 아버지를 완벽하게 반영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서
외부 및 내부, 도덕, 성격 및 영혼의 육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당신의 천사로 모세에게 나타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천사"라는 용어는 "메신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적용하신 것입니다.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라, 내가 한 천사를 네 앞서 보내노니
이 길을 계속 따르십시오... 그분 앞에서 자신을 지키고 그분이 아닌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분노를 유발하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여러분의 반역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출 23:20). 그리고 신약에서 바울은 신성한 영감을 받아 그리스도에 관해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
혔습니다.
그들” Heb. 1:4. 성경에서 이름은 성격을 나타냅니다. 대표적인 예가 야곱의 경우이다.
"사기꾼"이라는 뜻이다. 그는 아버지 이삭을 속였을 때 자신의 성격을 드러냈습니다.
형 에서에게 주어진 장자의 명분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였느니라. 그는 ~였다
에서가 이르되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한 것이 옳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이미 두
그는 여러 번 나를 속였습니다.” 27:36. 이 나쁜 성격 특성을 극복했을 때 야곱은
이름을 '승자'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바꾸었습니다. 이름을 바꾸심으로 그리스도
“네가 군왕으로서 하나님과 사람과 및
당신이 이겼습니다.” 32:28.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히브리서 1장 4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받으셨다고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분의 “성품”을 물려받았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은 다음과 같이 자연 자체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드러냅니다(롬 1:20). 부모는 자녀에게 성격 특성을 부여합니다. 아이
가 반복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행한 일들: “아버지처럼, 아들처럼”.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불완전하며 이러한 성격 특성의 전달도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아들을 낳으심으로 그분의 성품이 그분께 전달되는 것은 완전했습니다. 따라서, 그 성격은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합니다. 이전 장에서 보았듯이,
이는 아들로 땅 아래 있는 피조물의 구원자가 되려 하심이니라
죄의 힘.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돌아가 그분의 몸에 관해 성경은 그분이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본체”라 이로써 우리는 그에게 키와 용모와 용모가 있음을 알느니라
아버지와 동등하시다(빌 2:5).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의 “영혼”을 잠시 분석해 보겠습니다. 용어
성경에서 '영혼'은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 육신의 혼 은
피 속에"; 그러나 각주에서는 “생명”이라는 용어를 대체 번역으로 제시합니다. ~에
포르투갈어 개정 및 업데이트 알메이다 버전은 이쪽
변형: “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동일한 의미가 창세기 2장 7절에서도 나타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인생의;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태어나신 그리스도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은 그분의 생명과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명시적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형상”(히 1:3)은 동일한 영혼, 즉 동일한 생명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소유하셨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은 다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의미하므로
그렇지 않으면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는 수십 개의 성경 본문이 필요합니다.
다음 단락에서 다음에 수행될 내용을 더 잘 입증하십시오.

우리는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너희는 더 이상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행하지 말라.
다른 이방인들을 그 마음의 허망한 가운데 두느니라. 이해력이 어두워지고, 분리되어
하나님의 생명은 저희 속에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 어느,
모든 감정을 잃은 그들은 탐욕스럽게 해체에 몸을 맡겼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범하라.” 에프. 4:17-19. 본문에 따르면 이방인들이 갈라져 있다.
그들은 “그 마음의 허망한 대로” 행하고 “해산에” 자신을 내맡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순물.” 즉, 그들은 자신을 바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악한 길을 걷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과 정반대이십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었으면
그들은 거룩함 가운데 행하고 선을 행하며 사랑 가운데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거룩함, 순결함, 정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정의는 10의 법칙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계명; 왜냐하면 “그의 계명들은 다 의로우”기 때문이다(시 119:172). 영형
계명은 “영생”(요한복음 12:50)이고,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롬 12:50).
13:10. 그러므로 사랑은 정의를 행할 때 드러나는 하나님의 생명이요,
법률에 따라; 이는 거룩함 가운데 행하며 거룩하게 사는 것과 같으니라

순결함, 왜냐하면 “율법은 거룩”하기 때문이다(롬 1:1). 7:12.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연구할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되었으니 그의 탄생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자체와 접촉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롬 1:1). 8시 39분. 그러므로 우리의 영(마음)은
깊은 인상; 그리고 우리가 이 계시에 굴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경험을 하길 원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사랑 안에 뿌리를 박고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너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여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어떠하든지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엡 1:1) 3:14-19.

요점으로 돌아가서, 성서에서 몇 가지 용어를 발견한다는 점은 강조할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인간의 언어가
하나님의 생명을 한 단어로 정의하기에는 너무 가난합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용어를 통해 우리는 성경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이 분석은 다음과 같은 주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리스도의 본성. 그 이유는 그분이 생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형상"(히 1:3)을 통해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그분이 태어날 때 어떤 분이셨는
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특히 하나님의 "생명"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ㅏ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셨으니
자기 안에"요한복음 5:26. 이 표현은 기독교계에서 많이 오해되고 있는 표현인데,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용어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명령하셨다.
말하라... 나는 그의 계명이 영생인 줄 아노라"(요한복음 12:50). 십계명
그것들은 하나님의 성품의 표현이며, 따라서 그분의 뜻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생명'을 찾습니다.
그들에게 순종합니다. 그러나 계명은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라 표현이다.
그녀의. 바울은 로마서에서 "계명은 생명을 위한 것이라 "고 말합니다. 7:10. 그러나 그는 '생명'이 아니다. ㅏ
"생명"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또는 그가 무엇인지.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 우리는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인간 언어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용어
하나님의 "생명"의 의미에 대한 측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8; "하나님은 빛이시라" I John
1:5; "하나님은 영이시라" 요한복음 4:24; 그리고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거룩하다" 레위기 19:2. 사랑과 빛과 거룩함은 하나님의 생명과 일치합니다.
이는 아래 제시된 다른 텍스트에서도 확인됩니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은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 으로 옮겼 느니라”고 말했습니다 .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합니다”(요일 3:14).

-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걷지 않을 것이다
어둠 속에 있으면서 생명 의 빛을 얻으리라 ” (요한복음 8:12).
그분의 모범과 조화를 이루는 것은 빛 가운데 걷는 것과 같습니다. 대조적으로,
그분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명(요한복음 15:10). 그러므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순종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명에 따르면 계명은 "빛"입니다. 그건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주는 내 발에 등불이시니이다.
말씀”시 119:105. 그리고 현명한 솔로몬은 “율법은 빛이다”라고 말했습니다. 6:23. 빛
계명의 교정, 거룩함, 공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어둠
그것은 그들에 대한 불순종의 잘못, 불경건, 불의에 해당합니다. 처럼
예를 들어, 나는 우리가 여섯 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를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고 인용합니다.
의롭고 의로우나 그 범죄 곧 살인이 보이느니라
실수, 불경, 불의로.

-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바울은 “율법은 신령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7:14. 법은
그분의 뜻의 표현.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법은 일치한다
그분의 생각으로. 결과적으로 그분의 마음은 항상 그것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영 이십니다 . 그의 생각은
항상 그분이 정하신 율법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이와 같은 의미에서
그리스도께로 회심한 사람은 “영”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형편을 비교하시고,
그의 회심 이전과 이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고기;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6. 아직까지는 가능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 즉 그분이 생각하고 행동하시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율법의 원칙과 문자와 조화를 이루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은 빛이시다”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표현이 모두 의미가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이 그분의 율법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은 그분의 뜻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표현의 의미.

평가해 보면 율법은 “거룩하다. 계명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ROM. 7:12. 거룩하다는 말은 흠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도달하는 결론을 말하며, 로마서 7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죄법?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죄가 그 기회를 빌어... 내 안에 모두 깨어났어요
정욕... 그래서 율법은 거룩합니다. 계명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롬 1:1). 7:7-12.
그러므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씀은 율법 의 완전함을 뜻합니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은 사랑과 빛과 영이시라고 선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에 대해 말씀하실 때 “나는 거룩하다” (레 19:2)고 말씀하십니다. 덮는 천사들 그 자체,
그분의 보좌를 둘러싸는 것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다른 용어는 찾지 못했습니다.
창조주에게서 본 본질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낮에도 쉬지 아니하고
밤에도 말하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로다” Apoc.
4:8. 반복은 최상급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그분을 다음과 같이 본다는 뜻입니다.
가장 거룩하시고 사랑, 성품, 목적, 사역, 길에 있어서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아니요.
낮에도 밤에도 쉬지 말라”는 말은 그들이 지치지 않고 선언한다는 뜻이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이라는 말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이 시점에서 작은 괄호를 만들어 다음과 같은 점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자신만을 위해서만 간직하지 않으십니다.
장엄한 완전함, 즉 거룩함. 오히려 그분은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 우리에게 그것의 일부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만큼 그분의 성령을 주십시오 .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느니라”(요한복음 15:26), 즉 그분 안에서 나옵니다. 그를 비난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거룩함을 주십니다.

예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요한복음 6:63), 즉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폴
그것을 “생명의 영”(롬 8:2)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이해된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거룩함은 생명 이며, 영은 거룩함이 전달되는 “매체” 또는 “채널”입니
다. 거룩함은 사랑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롬 1:1). 5:5.

거룩함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골 3:14). WHO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거룩하며 온전하며 그의 영역에서
그분의 눈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께서는 사랑을 완전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들이여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대하고 기도하라
너희를 학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는 너희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늘에서; 이는 그가 그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취게 하시며 비를 그 위에 내리게 하심이니라
공정하고 불공평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우리는 만들지 않는다
세리들도 그러지? 그리고 너희가 형제들에게만 문안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무 많은? 세리들도 이런 일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있는 그대로 완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완전하시다.” 마태복음 5:44-48.

여기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즉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즉 완전하심 사이의 차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물은 가질 수 있습니다. 생물의 맥락에서 완벽함은 교활함의 부재입니다.
악을 행하려는 의도. 성경은 루시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창조되던 날부터 네게서 불법이 발견되기까지니라” 겔. 28:15. "부정"
속임수 또는 의도를 의미합니다 .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죄악이 있고 그 마음에 거짓이 없느니라” 시 32:2
업데이트됨). 그러나 피조물의 완전성에서는 무지로 인한 잘못은 제외됩니다. 하나님
“그는 그의 천사들을 미친 것으로 여기시며”(욥 4:18), 즉 그는 그들의 불완전함을 보신다. 말하자면
시편 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완전함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 것
계명은 무궁무진하니라” 시 119:96. 즉, 오직 하나님 안에만 절대적인 완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그것에 대한 지식의 정도에 따라서만 완전함 속에서 걸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악한 일을 계획하지 않으면, 즉 제한된 지식 내에서 이해합니다.
옳은 일을 결정하고 행하십시오. 즉, 하나님을 사랑하며 행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분에 의해 그들의 영역에서 완전하다고 간주됩니다.
마태복음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48.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지의 때”(행 17:30)를 고려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온전함과 거룩함에 대한 지식의 빛에 따라 피조물을 평가합니다.
그들의 양심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율법이 있으면 본래 적법한 일을 행하되 율법이 없으면 자기에게만 있느니라
법; 그들은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보여 주고 함께 증언합니다.
그의 양심과 생각은 고발하든 변호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루에
이 일은 하나님이 내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리라
복음." ROM. 2:14-16. 그러므로 하나님의 완전함, 즉 거룩함은 무지를 통해서라도 어떤 잘못도 전혀 없는 것인 반
면, 피조물의 완전함은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나 사랑에 대한 당신의 지식 정도에 비례합니다.

본론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본질에 관해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을 요약하면,
우리는 그분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완전함, 곧 그분의 생명입니다. 그것은 그분에 대한 사랑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열 가지 율법의 요약과 성취입니다.
계명. 율법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상세한 뜻이거나,
생물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여 권리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잘못에서. 이런 의미에서 율법은 또한 인간을 위한 빛입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행동의 길.

이것을 이해한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한 연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형상”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생명 곧 거룩함을 소유하였느니라
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완전성.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으로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느니라” 요한
5:26. 그리스도 안에는 빌린 것도 없고 파생된 것도 아닌 본래의 생명(거룩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관련하여 사용된 “거룩함”이라는 단어에 포함된 모든 용어,
아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요일 4:8;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니라”(롬 8:39).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다”고 밝혔습니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요한복음 1:5); 그리고 그는 친히 그리스도에 관해 말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빛이었느니라.
사람에게서" 요한복음 1:4. 즉, 하나님의 거룩함,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응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무엇이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가에 대하여 깨달은 이 사람들이니라.
성서는 또한 "하느님은 영이십니다"(요한복음 4:24)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영이니라"(고후 3:17). 즉, 하나님이 율법과 조화를 이루는 존재이시듯이
그것은 영적인 것이며(롬 7:14),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천국에서도 인정됩니다. 와 같은
그리스도와
그의 영광을 가리우매 그들이 서로 소리 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더라
만군의 여호와" 이사야. 6:3 아들의 거룩함, 곧 완전함을 알아보는 것은
신과 동등하다. 이러한 이유로 그리스도의 임재는 아버지의 임재와 동일합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에 나타났습니다. 그 중 잘 알려진 내용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이드로의 양 떼를 치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을 보려고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이세스! ... 여기 가까이 오지 마세요. 발에서 신발을 벗으십시오. 왜냐하면 그 장소는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라"(출 3:1-6). 사도행전에
서 스데반은 모세가 주의 사자이신 그리스도께 말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시내산 광야에서 그에게 나타
나…
그 광경에 놀랐다. 그가 관찰하려고 가까이 다가가자 주의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시기를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라"(행 7:30-32). 그리스도께서 직접 현존하셨고,
모세 앞에서; 그러나 그 순간 그것은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아버지의 것이었으며, 그분은 대변인이시며 "말씀"(요한복음 1:14)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옷을 벗어라.
발에 신발; 당신이 있는 곳은 거룩한 땅입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임재가 그분의 아버지의 임재와 동일한 거룩함을 나타내었음을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이 시점에서 강조할 가치가 있는 것은 비록 성경이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 안에서는 이것이 육체적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 안에
하나님께서는 "만세의 왕 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께"(딤전 1:17)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덧붙인다.
딤전 6:16: " 불멸을 가지신 이에게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는 살았다가 죽임을 당하였 느니라 보라 내가 영원히 살아 있느니라" Apoc. 1:17, 18.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버지께서 생명을 주셨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아들에게도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한복음 5:26). 여기서 "생명"이라는 용어에는 육체적 생명이 제외됩니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불멸이었으며, 엄밀한 의미에서는 불멸이셨습니다. 아들
아니요.

아버지는 영원히 불멸이셨다. 성경에서는 “이전에는 무엇이었으며, 무엇이었으며, 무엇이
올 것이다." Apoc. 1:8. 그러나 아들은 조화를 이루는 한 불멸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법으로.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심오하고 어려운 점입니다.
이해하다. 그러나 성경의 빛은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결의 거룩함을 상속받았음을 이미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당신의 뜻은 그분의 뜻과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법은 다음과 같은 표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도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길은 '영생'의 길이다
(요한복음 12:50)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을 때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분의 뜻이 그분의 표현인 것처럼 율법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분은 또한 율법을 주신 분이셨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으니까.
영생의 길로 행하라. 여러분이 수세기에 걸쳐 그분의 뜻을 계속해서 행할 때,
결코 그분의 생명을 잃을 위험을 무릅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완전한 거룩함은 그분을 보장했습니다
완전한 불멸. 그러나 그는 육체적인 면에서 불멸의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허락된 일이다
인간을 위한 희생이 되십시오. 그분의 거룩함을 버리고 그분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인류의 죄,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삼으신 것(고후 5:21); 죽을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은
그분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때 그분의 이러한 선택을 언급하셨습니다.
다시 가져가세요. 그것을 나에게서 빼앗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는 그것을 나에게서 준다. 나에겐 힘이 있다
그것을 주는 것과 그것을 다시 얻을 수 있는 힘.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남자
10:17, 18. 본문은 다음과 같이 이해됩니다.
사람을 위해 죽으심) 그것을 다시 취하시려고 (죄 없이 다시 살아나실 때) 아무도
그녀는 그것을 나에게서 가져가지만(내가 죄를 짓기로 선택한 경우에만 그것을 잃을 것이다), 나는 그것을 나에게서 준다.
(나는 나의 거룩함을 버리고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죄가 되었노라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와 분리되었느니라) 나에게는 그것을 줄(나의 거룩함을 전할) 권세와 그 권능이 있으니
다시 받으라 (이 거룩함으로 부활하노니 나는 결코 죄를 범한 일이 없느니라) 이 하나
내가 내 아버지께 받은 계명(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이니라
사람을 구하라)”.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로 돌아가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그에게 거룩함을 주셨음을 봅니다.
즉 자신의 생명을 소유합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영광의 광채”가 되셨습니다. 1:3;
이로써 영광은 거룩함의 눈에 보이는 표현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영광의 빛
하나님의 빛은 그리스도 안에서 빛난다. 요한은 그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해가 강할 때와 같으나”
빛난다” Apoc. 1:16.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언급하며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시니라”(고후 4:4). 그리고 그는 나중에 그 개념을 반복하여 “영광의 지식”에 관해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고후 4:6). 그러므로 그가 나실 때에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몸과 품성, 거룩함과 영광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그리스도는 “거룩함”으로 태어난 최초의 존재이셨습니다. 그때까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존재했다. 그러나 성경은 나중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 그분이 그러하셨음을 계시합니다.
또한. 새롭게 창조되어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갈 때에 천사들과 거룩한 쌍이
(아담과 이브)는 창조주께서 주신 거룩함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존하는 것은 그들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로 인해 그것을 잃어버렸고,
거룩함으로 생성되었습니다. 남성의 경우 이는 새로운 탄생을 통해 발생합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 예수님은 우리가 “거듭나야…
영”(요한복음 3:3,5). 이 탄생에 관해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벧전 1:1).
1:23).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을 따라 참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의 와 거룩함” 4:24. 즉 그리스도 이후에 한때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그들은 “거룩하게 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태어나게 될 다른 많은 사람들 중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분을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골 1:15)라고 부릅니다.
프리모게니토(Primogenito)는 '먼저 태어난 자'라는 뜻이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로 돌아가 보면, 그분이 탄생하신 후에
신비한 평화 회의가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은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우주와 천국을 창조하고 거기에 거룩하고 행복한 존재들로 거주하게 하십시오. 일부는 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해 희생으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면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피가… 알려졌 느니라 .
창세 전에” I Pet. 1시 20분. 그리스도께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구속의 계획을 실행하기로 동의하여 그와 동등함을 나타내셨느니라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 - 아멘! 성경은 “영생의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뜻과 영원한 때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라”
여러 세기 동안” (딛 1:2; 딤후 1:9). 이 말은 우리를 이 의회로 다시 데려갑니다. 표현식
'만세의 때'는 창조 후에 경과된 시간을 말하며,
세기. 우리는 지구의 움직임과 지구의 별을 통해 시간, 심지어 연도를 계산합니다.
하늘. 그러므로 세상의 때 “이전”에 있었던 모임은 오래전에도 일어났습니다.
우주를 창조하는 것. “만세의 때” 이전에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무한히
맙소사, 그들이 우리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느니라. 아버지께 영광
그리고 아들에게!

같은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중요한 회의에서 다룬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사이에는 “그리스도”가 기초로 있었습니다. 그에겐 꼭 필요했다
우주와 우주를 안전하게 창조할 수 있도록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로 동의했습니다.
천사와 인간을 포함한 존재의 질서. 이런 방법으로만 생성 시 보안이 유지됩니다.
그들이 곤경에 빠졌을 때 그들을 구하기 위한 조치가 설명될 것입니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는 데 동의하지 않으셨다면 아무 것도 창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으로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존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먼 곳 – 그들 중 영원한 파멸에 빠지게 되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에서 구원하실 수 없느니라.
원하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요 1:3)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안에", "장자", 거룩함으로 처음 난 자들이 "그 안에" 있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창조되되, 보좌이든,
권세든지, 정사든지, 권세든지;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그분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서 1:15-17.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시므로 안정을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우주의 영원한 통치와 창조될 존재들의 행복; 도관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피조물에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계시를 받으면 그들은 의식적으로, 자발적으로, 즐겁게 충성심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그의 창조주를 향하여; 마침내 일어난 반란은 무너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모든 것"으로 삼으심(고전 15:28; 즉, 만약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므로 장차 죄가 일어날 것과 그 죄의 장래를 미리 알았느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은 우주 창조 작업을 시작하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겠다는 약속에 서명하시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죽음. 그렇기 때문에 "창세로부터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13:8.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포기하고 그에게 생명을 주어야 함을 아셨습니다.
인류를 위해; 나는 그분이 온갖 종류의 학대와 학대를 당하시는 것을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반항적인 피조물의 병든 마음에서 잉태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위와 위엄과 사역을 연구하면서 그분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창조와 우주 정부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루겠습니다.

제4장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의 지위와 사역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에 있어서.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 1:1. 그리고 그리스도는 "태초에 계셨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느니라" 요한복음 1:3.

우주와 존재의 창조에는 그리스도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그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것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골로새서 1:17.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아버지)께서 하늘을 준비하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느니라. 언제
심연의 얼굴이 에워싸여 있었다. 그가 심연의 근원을 강화했을 때; 언제
여호와께서 바다에 경계를 정하사 물이 그의 명령을 어기지 못하게 하셨나니 언제
땅의 기초를 지었으므로 내가 그와 함께 있었고 그의 학생이었으며
날마다 그의 즐거움을 누리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느니라" 8:27-30. 텍스트
아버지와 자녀의 사랑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위해 창조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기쁨"이셨으며 아버지의 능력을 본 것을 배우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아들의 말씀)을 통해 "항상 그분 앞에 모시고" 성취하십시오.

잠언 8장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전지하게 태어나지 않으셨음을 우리에게 이해시켜 줍니다.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배웠다(잠 8:30). 그러나
아버지께서 자신의 목적을 그에게 계시하셨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그분의 뜻에 부합합니다(이 시점에서 그분은 이미
우리의 대용품이자 구세주).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전능자로 낳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존재하
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창 17:1; 출 6:3; 겔 10:5;
Apoc. 4:8; 1:8; 11:17; 15:3; 16:7; 19:6, 15; 21:22).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마 26:64; 막 14:62; 눅 22:69). 하지만
그는 전능자가 아니었 습니다 .

비록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에게 고유한 능력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그분의 완전한 거룩함과 성품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탄생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모든 결정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분에게 무한한 권위를 주셨습니다. 로
아들의 결정은 항상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심으로써 뒷받침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는 하나님의 사명에 관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천사로서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면서 성취할 것입니다.
" 나의 천사가 네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게로 데려갈 것
임이라.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출 23:23).
그리스도께서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일에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명령하고
전쟁을 지도할 것이다. "나의 천사가 갈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적을 파괴하는 힘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고 말씀하셨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무제한적인 권위의 또 다른 예는 20절과 21절에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천사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를 조심하여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분께서는 너희의 반역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23:20,
21.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실 완전한 자유를 가지실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아들의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신약성서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하는 자가 없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들을 하나님과 같이 존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를 공경하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5:22, 23.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자신과 동등한 권위를 주셨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을 공경하기를 바랍니다.”

창조물 앞에서 그리스도의 위엄은 그분의 거룩함을 위해 두드러졌습니다.
사랑과 영광과 인격과 권위가 하나님과 동등합니다. 여기에 추가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는 각 존재의 창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다. 그럼 첫 번째 이미지는
모든 천사가 창조되었을 때 본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것, 처음으로 그에게 문안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날. 그리스도께서는 나중에 반역한 그룹인 루시퍼도 창조하셨습니다.
너는 기름부음을 받은 그룹으로 보호하게 되었고 내가 너를 세웠느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있었습니다.”
에즈. 28:14. 그분은 자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3인칭으로 표현하셨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내가 너를 세웠다”고 말씀하시며 루시퍼를 지으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창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1:26.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류의 아버지의 첫 모습의 그림 속에 계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를 위하여” 골로새서 1:16 만들어졌음을 기억합시다. 즉 우리 모두는
우리는 그분의 소유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에게서 났고, 의존하여 태어났다.
무한한 거룩함과 영광과 위엄과 권세 가운데서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아버지의 결정과 권리에 따라 피조물 앞에서
보편적인 왕좌. 사도 요한은 왕좌가 “하느님과 어린양의 왕좌”임을 보았습니다.
Apoc. 22:1. 원본에 가장 충실한 번역에 따르면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되 네 보좌는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의 것이니라” 1:8.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피조물로부터 경의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존은 들었다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모든 생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말하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에게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무궁토록 주셨느니라” Apoc. 5:13.

그분께서 포기하신 것은 존귀와 위엄과 영광의 장엄한 자리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간성을 스스로 짊어지고 사탄과의 싸움에 맞서십시오
아담과 그 후손이 그때까지 다 넘어졌던 땅에
그것으로 우리를 구해주세요. 웅장하고 놀랍고 신비한 겸손! "확실히
경건의 비밀은 크도다 곧 육체로 나타나신 이가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천사들에게 보이고 이방인에게 전파되며 세상에서 믿느니라”(딤전 3:16).
우리는 이 위대한 사랑의 신비, 곧 메시아의 오심과 성육신을 연구할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제5장

화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진 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수수께끼의 평화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그때까지 숨겨져 있었습니다.
생물. 그분은 사탄이 속이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인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의를 둘 것이다. 이게 너한테 상처를 줄 거야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창 3:15). 성경에서 여자라는 용어는
교회.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곧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예비하였노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2. 사탄의 씨앗
그를 섬기며 “의 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로 구성될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의 권세를...
육신의 뜻과 생각의 뜻” 2:2, 3. 여자의 씨는 누군가가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곧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약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또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그 후손에게 많은 사람의 말대로
오직 한 사람으로서 곧 너희 씨 곧 그리스도에게니라.” 여자. 3:16.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내려오는 인간의 씨로 세상에 올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씨는 남자의 정자이며 , 이 정자는 난자와 수정됩니다.
새로운 생명체를 형성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은 누구나 범죄하지 않습니다.
죄; 왜냐하면 그의 씨가 그 사람 안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을 수 없으나 이는 그가 나심이라
하나님." 요한1서 3:9. “씨”라는 단어는 원래 “정자”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 말로
그리스도는 여자의 “씨”로 오실 것이며, 그분이 세상에 씨로 오실 것임을 보여줍니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마리아의 자궁에 이식되어 난자를 수정시키고 신비롭게 마리아를 덮습니다.
자연이나 인간의 육체를 지닌 신성한 영혼. 그러므로 "성육신"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성육신에는 무한한 사랑의 희생이 포함되지만, 지금까지는 거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 가려져 있는 인류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천사들에게도 비밀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은혜를 예언한 선지자들은
이는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로 되어 있었으니... 천사들도 주의하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1 애완 동물. 1:10-
12.

그리스도께서는 "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형체를 가지사
남자들"필. 2:6, 7. 하나님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표현은 우리가 그분의 물질적인 몸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셨고, 겉모양이 아버지와 동등하고, 장엄한 몸과
왕처럼, 완전하고 불멸의 남자다움의 활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비례하여 피조물은 그보다 더 영광스러웠다.
그들로부터; 그분의 몸은 빛나고 아버지의 영광을 발하고(히 1:2), 그분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계 1:16),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팔과
발은 빛나는 구리 같으니" 단 10:6. 그의 목소리는 "의 목소리처럼 강력했습니다.
무리가 많으며"(단 10:6), 동시에 다정하고 친절합니다. "그 입이 매우 온유하며"(아 5:16). 그리고 그분의 외모는 완벽하게 아
름다웠습니다.
바람직하다"(아 5:16).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 2:5, 6.

앞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됨"이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위를 포괄한다.
그리스도는 우주와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의 공동 창조자이시며 나눔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아버지의 결정과 피조물 앞에서 우주의 왕좌에 대한 권리; 전수
같은 이유로 그들 모두는 존경과 존경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친밀한 목적에 참여하고 유일한 대변인이 됨
하나님의 뜻, 즉 말씀, 즉 피조물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은 또한 그분이 완전성, 즉 사랑의 동등성을 소유하셨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성격과 결과적으로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함은 절대적이었지만,
생물과 같은 상대적인 것; 이는 그분의 거룩함에 대한 지식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이 거룩함을 소유하셨습니다. 그림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안에는 조금이라도 오류, 실수, 오점, 사랑의 결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천사들도 다음과 같은 말을 반복하여 아들의 완전하심을 증거하였느니라
세 번이나 그것이 그분께 가장 높은 등급으로 귀속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이사야. 6:3.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빌립보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5). “찬탈”이라는 용어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리를 차지하거나 차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속.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찬탈에 의해서가 아니라,
피조물보다 먼저 아버지의 권리와 결정에 따라 탄생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즉 육체와 정신과 모든 것에 있어서 사실상 하나님과 동등하셨느니라
성격(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권력과 절대 불멸성의 예외).

아름답고 장엄한 모습으로 존재하며, 이 영광스러운 상태로 존재하며,
무한한 승영의 위치, “자신을 비우셨다”; 또는 다음의 용어에 주어진 의미에서
흠정역(King James Version) 번역, “ 아무런 평판도 없게 되다.” 다른 버전에서는
“자신을 비우셨다”라는 용어 대신에 “자신을 소멸하셨다”(Almeida Revista e Corrigida,
2009). 두 가지 이해는 모두 적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 서로를 보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당신의 몸 안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복종시키신 무한한 굴욕의 신비
강생.

"자신을 소멸시켰다"는 말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동등한 육체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외형과 영광, 또는 성경 용어로 “형체로 계시다”이다.
하나님”은 그분을 영원히 잃어 버리기 위해 겸손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멸망되었습니다. 그가 멈췄다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키와 모든 영광을 가지셨으나 작은 것만큼 작아지셨으나
작은 정자는 아버지에 의해 마리아의 난자에 주입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언급하시는
이 순간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
준비” 히브리어. 10:5. 아들의 구원 집행은 다음과 같이 하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육신의 기회와 무한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게다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과 육체를 잃으셨다면 그것은 거의 무한한 굴욕이었을 것입니다.
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존재보다 우월한 형태를 가지며, 그 본성을 취한다.
인간은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녀가 도착했을 때 그녀를 인수하셨습니다.
4천년의 세월을 거쳐 저하된 후, 약점의 하한선까지
죄. 평화 회의에서는 우주의 이익과
그분의 뜻에 반역할 더 이상의 변명을 제거한다면, 그것은
아들이 인간의 본성을 최고 수준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취하는 것이 편리했습니다.
거기에서 사탄과 맞서기에는 약한 정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할 것이다.
수세기에 걸친 퇴화. 그리고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태어났다” 갈. 4:4. 인류가 정점에 도달했다는 증거
더 낮은 것은 품종의 약점을 강조하는 다양한 질병에 대한 보고입니다.
그리스도 당시에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으며(요한복음 9:1); 절름발이, 귀머거리, 벙어리,
나병환자(마 11:5), 중풍병자(마 4:24), 미치광이, 귀신들린 자(마 17:15),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모든 종류의 질병을 옮기는 자(마 9:35)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백성은
당시 하나님의 교수; 그는 배도하기 전에 여러 세대에 걸쳐
모세가 받아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기록된 영양, 위생 및 건강 보존에 관한 특별 지침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신 굴욕은 그것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영형
빌립보서 2장 7절의 다른 구절을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확장됩니다.
킹제임스 성경 번역 가능성
평판". 하나님은 귀인이나 귀인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있는 그의 아들의 군대로 택하셨느니라
그분께 육체적인 위로와 좋은 것을 더 잘 제공할 수 있는 부자
인간 사회의 기준에 따른 기회. 가족 중 한 명을 선택하세요.
그는 유대인 가운데서 특별한 구별이 없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선택, 아니오
남자지만 여자, 여자가 분명했던 시대에
장엄한 유물을 보관하는 곳으로 사회에서 덜 구별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늘에서 온 선물. 그리고 그는 가장 가난한 자 중에서 복 있는 자를 택하여
이스라엘 여자들.

지금까지 노출된 것 외에도 수많은 이미지와 사진에서 보여지는 것과는 다르게
예수의 어머니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그림, 마리아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들은 원칙적으로 부모와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아름다운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으시니라. 그를 보니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이는 우리로 그를 사모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53:2. 인간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으로부터 물려받았는가?
마리아, 그러므로 그녀는 아름다운 여자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식에 있었다
남자들의 눈으로 볼 때 그녀 자신에게는 어머니가 되라고 추천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은 더욱 커져갑니다.
주님, 내 영혼은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근거 를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당신의 종” 이사야. 53:2. 그러므로 예수는 아름답고 주목을 끄는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펴보아도 그분을 바랄 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사. 53:2.

그분이 지상에 오신 사건을 둘러싼 특별한 팡파르는 없었습니다.
천사는 가족에게 다음과 같은 직접적인 통신을 보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있는 한 동네와 약혼한 처녀에게
다윗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라 이름하는 요셉이요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입장
그녀가 있던 천사가 말했습니다. 만세, 축복받은 자;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여자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리고 보라, 당신의 자궁 속에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은 큰 일이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지극히 높으신 분이 당신의 그림자로 당신을 덮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게서 나실 거룩하신 이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Luc. 1:26-35.

마리아는 남편과 연합하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탄생 상황과 관련하여 구주의 삶에 추가적인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녀의 남편조차도 “그는 공정하고 그녀를 욕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남몰래. 그가 이 일을 계획할 때에 보라, 주의 사자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으로 나셨느니라” 마 1:19, 20.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영이 찬송하도다.
나의 구원자 하느님을 기뻐하십시오. 이는 그분께서 당신의 종 의 천함 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 보라,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니 주께서 나를 크게 하셨음이니이다
마이티; 그분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에 이르느니라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분은 팔로 용감하게 행동하셨습니다. 교만을 쫓아냈다
그들의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권세 있는 자들을 왕좌에서 폐위시키고 겸손한 자들을 높이셨습니다.
배고픈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고, 부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그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그분의 자비를 기억하며;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후손에게 영원히.” 루크. 1:46-55.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어떠한 정치적 표현이나 차별도 누리지 못하는 작은 도시를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회: 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 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예로부터니라
영원의 날부터.” Miq. 5:2. 그리고 이 멸시받는 도시에서 한 곳이 선택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겸손할 수는 없습니다 - 동물을 위해 만들어지고 사용되는 마구간
밤을 보내다. 그가 태어난 곳은 구유이자 소의 먹이를 주는 쟁반이었고,
기록된 바와 같으니,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성읍 베들레헴이라 칭하니 (그는 다윗의 집 족속이었으므로) 모집하려 하여
임신한 그의 아내 마리아와 함께. 그리고 그들이 거기 있는 동안에,
그들은 그녀가 해산하기로 되어 있는 날들을 채웠다. 그리고 그녀는 첫 아들을 낳았고,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구유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관"... "천사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큰 소식을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기쁨이 될 것이라 오늘 다윗의 성에서 너희가 태어났으니
그 분이 바로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곧 포대기에 싸여 있는 아이를 보리라.
구유에 누웠느니라.” 루크. 2:4-7; 10-12.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맥락에서,
"자신을 낮추었다"는 용어는 그 완전한 의미를 취하고 자발적인 성향을 예시합니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하나님의 모든 종에게는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것이 있어야 하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한,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보냄

성서는 예수가 메시아, 곧 아들 그리스도라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 그는 단지 또 다른 인간, 즉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요셉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에 관해 아버지께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 한 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10:5; ~의
선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세상에 오신 것을 아는 바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마리아의 알입니다.

성경은 예수가 문자 그대로 요셉의 아들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합니다.
"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마 1:23) 라고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 때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에게 오심을 알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없는데 ? " 루크. 1:34. 그리고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 곧 맏아들을 낳기까지 알고 있었고 그 이름을 예수라 불렀느니라."
1:25. 사실은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약혼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 1:18.

처럼?

천사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말하였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리니
지극히 높으신 분이 당신의 그림자로 당신을 덮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게서 나실 거룩하신 이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Luc. 1:35.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분께서는 자신 이 세상에 왔다고 친히 선언하십니다.
"나는 진리를 증거하려고 세상에 왔습니다 "(요한복음 18:37). 그러므로,
천사가 사용한 표현: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네게 임하시리니.
덮으실 것이다"라는 말은 단지 하나님의 신성한 영혼을 두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비밀을 담고 요약할 뿐입니다.
마리아의 난자에는 우리의 DNA와 동등한 그녀의 아들이 있습니다. 성령은
법인이나 사람; 오히려 그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요한복음 15:36) 미덕입니다. 당
이 미덕을 통해, 우리에게 본성을 알 수 없는 신비한 힘이신 하느님께서
성육신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육화의 물리적인 과정은 우리에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결과는
그 내용과 그 영적 의미는 성경에 널리 밝혀져 있습니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당신의 이해는 우리를
구원의 길. 성육신으로 인해 기존의 생명이 이식되었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하느님의 아들(마리아). 성서에서 “영혼”이라는 단어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우리는 “ 육신의 혼은 피에 있음”을 읽습니다. 번역하는 동안
Almeida Revista e Atualizada는 “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제시합니다. 창세기에서
2:7, 아담의 창조에 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으니
흙을 덮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장군. 2:7.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에 의해 마리아의 알 속에 “살아” 있게 되셨듯이,
그리스도의 “신성한 영혼”이 그 사람 안에 자리잡았다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가치가 있는 진실을 추출합니다. 그분을 갖고 있다는 사실
신의 모습을 한 거대한 몸은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변해 '놓여질 수 있었다'
마리아 안에서”는 성육신이 말하자면 “위험이 큰 수술”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그 결과 이전 몸이 파괴되거나 죽었습니다.
하나님.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본질이 담긴 부분을 조심스럽게 옮기셨습니다.
마리아의 알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진리는 다음 구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죽 이사 종의 형체를 가져” 빌. 2:7.
모든 수술은 후속 결과를 초래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이전 몸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줄어들어 마리아에게 안치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사랑인지,
신비한 것, 놀라운 것, 이해할 수 없는 것, 존경할 만한 것, 존경할 만한 것, 존경할 만한 것,
정의를 완전하게 하여 거룩함을 이루고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도다!

제6장

아기 예수의 거룩함

이전 장에서 우리가 연구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천사의 선언에 담긴 진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성령과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또한
너에게서 나실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1:35. 화신은 다음과 같았다.
기존의 그리스도의 생명, 즉 신성한 영혼이 난자에 이식된 결과입니다.
마리아. 당연한 결과로 아기 예수는 태어날 때와 똑같은 거룩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소유하셨고, 하늘은 하나님 자신과 동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천사야
“그러므로 네게서 나실 거룩한 이를 일컬어
신의 아들". 즉, '이것 때문에', 즉 '이것 때문에'라는 작업을 통해 탄생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당신의 아들을 마리아 안에 두셨으니, “네게서 나실 거룩한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느니라.” 아기 예수의 거룩함은 그 증거요 증거였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분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주장하셨다.
유대인들에게 여러 번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에워싸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영혼을 정지시키실 건가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하는 작품들
내 아버지의 이름, 이것이 나를 증거한다.” 요한복음 10:24, 25. 그분의 사랑과 의의 일들
그리고 자비는 그분의 거룩함과 사랑을 나타내어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하늘에서 보내어진 구세주.

아기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났으나 사람의 모양 으로 나타나셨고
그리하여 그것은 남자들에게 드러났습니다 . 이로 인해 그분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마태복음 1:23). 빛
지금까지 우리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 본문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소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교리를 지지합니다.
“하나님”, 혹은 “아들 하나님”.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만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하는
그분은 그분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그들이 당신만을 유일한 분으로 아는 것입니다 .
참 하나님” 요한복음 17:3.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요한복음 10:36). 그리고 이전에 본 내용을 반복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구속 사역의 기초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멸”(딤전 1:17)이며 죽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죽어야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신”이 되십시오.

본론으로 돌아가서 일단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부터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다른 본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계시를 전해 주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빛이 어두움에 비취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4, 5. 즉, 그분 안에서
거기에는 거룩함과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의미에서 사람들을 계몽시켰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입니다. “참 빛이 있어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세상에 온다”요한복음 1:9. 사랑을 포함하는 거룩함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 왕국의 영적 본질은 하나님의 완전한 순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예수님의 생애 첫 순간부터 예수님의 생애에 나타났습니다.
남자로서의 존재.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은 온 세상을 밝게 비췄습니다 .
인류는 영생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분에 의해 열렸습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고 그분의 삶의 모범을 통해 설명하십시오.

사도 요한은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같은 맥락으로 주장합니다.
생명이 나타났으니 우리는 그것을 보고 증거하여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전하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니라”(요일 1:2). 즉,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니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영생의 보장이니라. 그리고 사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도 전하노니…
우리는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노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요한일서
1:3, 5. 즉, 요한과 사도들은 그리스도에게서 하느님이 완전한 분이심을 배웠습니다.
거룩한; 그분에게는 불완전함이 없고, 사랑, 정의, 보살핌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피조물들과 함께. 그들은 그리스도의 미덕을 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미덕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명상하고 있는 시점은 또 다른 연구 분야를 열어줍니다. 에서
아기 예수의 거룩함은 하나님과 동등하므로 무한하다는 것을 깨달음
우리는 그분과 우리 사이의 뚜렷한 차이를 봅니다. 우리는 성자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라면
요한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라는 말로 사람의 탄생을 언급했습니다.
3:6. 이 육신이 소유한 것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롬 1:1). 8:5-7. 장차 ~ 가 되는
육으로 난 것은 아담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하와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 이니라 ” 2:23. 에 빠진 후
죄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육체적인 약점과 도덕적인 타락을 그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자손. 즉, 그들은 자연스럽게 무엇을 하려는 경향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악을 행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전적 경향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다음과 같이 묘사한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요셉과 마리아는 아담의 후손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성경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 편에 있는 가문의 계보는 다음과 같이 끝난다. “야곱은 요셉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예수께서 낳으신 마리아니라” 마 1:16. 누가복음은 오름차순을 추적한다.
마리아 편에 계신 예수: “예수께서 친히 삼십 세쯤 되시니라.
(그가 돌본 대로) 요셉의 아들이요 헬리의 요셉” Luc. 3:23. 루카스가 할아버지를 소개합니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요셉이라고도 불리는 마리아.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족보에 언급된 것은 그 초점이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남자 로 올 것인가 . 예수께서는 성경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언하라" 요한복음 5:39. 누가는 계속해서 마리아로부터 아담까지 올라가는 계보를 추적합니다.
같은 예수라 사람들이 믿던 대로 요셉과 헬리의 요셉과...
일곱과 일곱은 아담에게서 났고 아담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누가복음 3:23-38. 그러니 마리아도 다른 사람들처럼
아담의 후손들이 육으로 났고 육 으로 나셨고, 같은 육으로 나셨느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도 같은 경향, 즉 육체의 성향을 물려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였느니라"(롬 1:1). 8:7. 그리고 이러한 추세로 인해
그녀는 어느 정도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죄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1:1)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23. "그만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으므로 다 죄를 지었느니라" (롬 1:1). 5:12. 그러므로,
우리는 마리아가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이 말의 뜻은 참으로 하나님의 종이니 자기로 난 것을 부인하고
죄를 짓는 경향이 있고 죄인이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이유로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 그녀가 죄 없이 태어났을 것이라고 가장합니다.
예수님은 성자로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지탱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늘에 계셨고, 그래서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자로 태어나셨습니다. 아니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도 다른 모든 인간과 마찬가지로 죄를 짓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때로는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좋은 의도를 갖고 있더라도. 이런 이유로 만약에
요셉과의 결합을 통해서만 아들은 육체의 성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담의 다른 아들들처럼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은 악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된 후 "거룩하게" 태어나신 유일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구에 오기 전에 이미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성육신 안에서 거룩한 자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마리아의 자궁에서. 마귀들도 그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아! 우리가 당신과 함께 가지고 있는 것,
나사렛 예수? 우리를 멸망시키러 왔느냐?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마가복음 1:24.

그리스도의 거룩함은 인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 그녀는
그는 천성적으로 거룩함이 없었으나 절실히 필요했다.
그녀의. 오직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만 아담이 잃어버린 신성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인간 성전에 오실 것이며,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자가 오심을 통해서만 가능해질 것입니다.
신, 인간으로서. 이 영적인 진리는 수세기 동안 가르쳐졌습니다. 로
이스라엘에게 성소를 건축하라고 모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짓되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리라.” 이동. 25:8. 성소는 인류를 대표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거룩함이 거처하는 성전이라면.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를 입증하는 것이: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가운데서
내가 거하리라”(고후 6:16). 이 신성한 목적은 주로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었습니다. 그
아버지께 말씀하셨다: “당신은 나를 위해 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5. 그분이 성육신하셨을 때, 다음의 충만함은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부터 소유하신 거룩함은 먼저 성전에 거하셨습니다.
인간.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일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성전 - 우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엡 1:1). 3:19. 영형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통하여 그분의 충만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영혼에 거룩함이 심어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인생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 목적이 자신의 삶에서 성취되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모든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장

원죄는 없다

이 시점에서, a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명확히 하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사탄이 놓은 장벽입니다.
우리 영혼에 신성한 사랑과 거룩함이 충만해지게 하소서. 수세기 전에 공식화되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났다고 의도한 저자들에 의한 교리이지 성경적이지 않다.
아담의 죄를 물려받아 선천적으로 죄를 지은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결과
인간은 자신의 본성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을 멈추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저자들은 실패했다
성경에 따르면 무엇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지 이해하십시오. 이것이 기초이다
당신의 실수.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요한일서 3:4 (알메이다 개정 번역 및
업데이트됨).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행위 이다.
그것은 '본성'이나 경향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 행하는 죄인 이로다
행동.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죄인이 되지 아니하나니
아담과 이브의 후손.

앞서 언급한 반성경적인 가르침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의 일부를 해석합니다: “보라, 나는 불법과 죄 가운데서 창조되었나니
내 어머니가 나를 잉태했어요.” 시 51:5. 이것으로부터 그들은 사람이 잉태 될 것이라고 추론합니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이미 죄인으로서. 그러나 이 구절은 실제로 다윗이 죄인의 아들이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는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시편 51편의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회개했을 때 행한 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어서 살인.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시켜서
그는 확실히 전투에서 죽임을 당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랬습니다(2 참조).
사무엘서 11장과 12장). 그런 다음 그는 회개하여 2절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내 죄악에서 완전히 벗어나 내 죄에서 나를 깨끗이 해주십시오.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범법과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너 반대, 반대
내가 오직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시 51:2-4). 다윗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종류의 “원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쁜 행동으로 인해
그가 실제로 저지른 죄 때문에 . 그는 “내가 죄를 지었고 악한 일을 행하였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 그러니 당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다윗은 죄인의 아들로서 유전받은 약점을 한탄합니다.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가 잉태하였으니” 시 51:5. 이 구절은 "원래의 죄"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자연. 아니요! 그는 인간의 약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악과의 싸움에서.

여전히 요점을 말하자면, “나는 죄악으로 지음을 받았느니라”라는 용어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원래 단어
“형성되다”로 번역되면 “존재하게 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용어
“불법”은 시편 32편 2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순종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죄악을 전가하며 그 마음에 거짓이 없느니라.”
업데이트됨). 돌로(Dolo)는 법조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로,
사전, 속이려는 욕구, 악의, 법을 위반하려는 결정 "완전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의 범죄성에 대한 지식”. 이제 "내가 죄악을 행하여
형성된다”는 것은 인간이 형성되거나 생성되는 순간을 의미한다.
정자는 난자를 수정시킵니다. 배아가 자궁에서 수정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범죄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고도 법을 위반하겠다는 결심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는 아직 자신의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용어에서 언급된 인간 존재의 '불공평함'은
부모에게 귀속됩니다. 그들은 이미 법을 알고 "의도"를 갖고 행동할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서
이 구절의 경우, 그 단어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어머니를 가리킨다.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 51:5). 원래 단어를 번역한 것
이 구절에서 “잉태하다”라는 용어는 또한 “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친밀한 관계. 그러므로 “그녀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으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 어머니라”라는 본문은 문자 그대로 다윗의 어머니가 그를 잉태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체를 기쁘게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육체, 남자x여자 관계를 통해. 이 구절이 현실을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인 모든 성인, 특히 결혼한 성인은
인식하기 어려움. 하나님은 부모에게 그분의 유업으로 "자녀"를 주신다(시 11:1).
127:3). 그런데 어떻게 보내나요? 순간의 열기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위해. 압도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육체의 즐거움을 구하기 전, 곧 그들이 자녀를 세상에 낳기 전이었느니라. 이 현실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요점을 마무리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시편 51:5의 본문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약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간은 부모가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죄인. 그는 부모의 성향을 물려받았고, 그것에 굴복하여 간음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는 인간의 나약함을 극복할 수 없는 장벽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정의를 실천하세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고 힘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온전히 확신했습니다.
그때부터 순결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인간 본성 속에서도 말입니다.
다음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 하게 하소서. 나를 씻어주고,
내가 눈보다 희리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정신... 자원하는 정신으로 나를 붙드소서. 그럼 내가 가르쳐줄게.
범죄자들은 주의 길을 따르며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시 51:7-13. 데이비드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를 붙드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께 순종하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하게 되며, 마침내는 효과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분의 계명, 다윗이 자신을 헌신하여 "가르치겠다"고 말한 기회
당신의 길은 범법자들에게로 향합니다."

요점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죄를 짓는 경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결론 내립니다.
우리의 첫 조상은 그것을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 죄는
경향이 아니라 행동.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요한일서 3:4(개정 및 업데이트 번역). 그것은 우리가 범법을 선택
한 결과입니다. 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단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5:12. 죽음은
"죄"(롬 6:23)의 삯이지 죄의 성향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태어났지만
죄를 짓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범할 때만 우리는 죽음에 종속됩니다.
죄가 완성되면 죽음을 낳습니다." 이모. 1:15. 우리는 할 수 있고,
참된 복음을 얻으 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저항해야 합니다 . 우리는 이것을 처리할 것이다
나중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성의 완전함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 후에야
다음 장의 연구 주제가 될 것입니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제8장

그리스도의 인성의 완전성

구원의 맥락에서 하나님 아들의 인성은 우리에게 모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진실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들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 계실 때 그들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쳐다보지 않는 거야
유혹을 이겨낸 그분의 승리는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의 예입니다.
그들이 그분을 믿기를 원한다면, 그분이 받으셨던 것과 동일한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6, 7의 본문에서 우리는 이전 그리스도의 몸이 떠났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분이 성육신하셨을 때 존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비한 방법으로 변화되셨으나
아버지께서 정자에 해당하는 씨앗으로 계시하시고 마리아의 난자에 넣으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은 인간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14.

잉태 후에 그리스도의 탄생은 다른 존재와 마찬가지로 일어났습니다.
인간: "마리아는... 임신했어요. 그들이 거기 있는 동안에 그녀가 해산할 날이 차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첫아들을 낳
아 그를 포대기로 감쌌다.
옷" 루크. 2:5-7. 그분의 첫날에 관한 기록은 그분을 다른 어떤 기록과도 전혀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중 하나: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니라" Luc. 2:52. 당신과의 관계
요셉과 마리아는 모든 인류에게 공통된 것으로 성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누가복음. 2:51. 당신의 지인
그들이 말하되 이는 우리가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요한복음 6:42.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유다의 형제인 목수가 아니냐?
사이먼? 그리고 당신의 자매들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6:3.

예수님의 마음은 인간의 마음이었고, 그에게는 타고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상한. 그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면서 모든 것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니요 아들도 아니요 오직 아버지뿐이니라"(막 13:32). 인간으로서 그의
정신적 능력은 그의 부모의 생명력에 의해 전달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마 1:1. 그러므로 그는 다윗이나 다윗보다 낫지 아니하고
아브라함. 그분은 한계가 있지만 인간적인 추론, 기억, 의식을 갖고 계셨습니다. "왜,
사실 그분은 천사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하셨습니다"(히브리서 1:1). 2:16.

예수의 몸은 또한 인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힘으로 인해 제한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필요 사항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는 배고프고 목마르고 피곤하고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사십 주야를 금식하신 뒤에,
배고프다” 마 4:2;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19:28. “예수께서 피곤하여
길에서 샘 곁에 앉으시니라”(요 4:6). “그리고 그는 고물에서 자고 계셨습니다.
베개를 베고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당신은 하실 수 없나이다
몹시 괴롭히다?" 마가복음 4:38. 목이 마르면 우물 앞에서 기다려야 했다.
누군가가 인간이 사용하는 장비를 가지고 와서
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샘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고 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에게 물을 좀 주소서” 요한복음 4:6, 7.
그 여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 여자는 우물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주님, 당신에게는 물이 없습니다.
물을 길어야 하는데 그 우물은 깊습니다”(요한복음 4:11).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노라”(요 5:30)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거쳐야 할 길을 아버지께서 걸어가시기 위한 아버지의 계획입니다.
그의 승리는 누구든지 자신의 삶에서 재현할 수 있는 모범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사용하여 적과 맞섰습니다. (i) 성경
신성한, (ii) 믿음과 (iii) 기도.

(i) 성경: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네가 아들이면
하나님이 명하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그러나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이에 마귀가 그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 꼭대기에 두니라
성전에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하시니라 왜냐하면 이건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그의 손으로 너를 붙드시리니
돌에 발을 부딪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악마는 또 그를 아주 나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높은; 그리고 그에게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이 모든 것이
너희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그가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악마가 그를 떠났습니다.” Matt.
4:3-11.

(ii) 믿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
을 보고 두려워하여 말하되 `이것은 바다 위라'
귀신. 그리고 그들은 두려움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평안하라
힘내세요 나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보내소서
물 위로 당신에게로 오십시오. 그리고 그는 말했다: 오라. 그리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걸어갔다.
물 건너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러나 강한 바람을 느끼면서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것은,
그는 바닥으로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매트.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14:25-31. 또 다른 경우에는 기도 중에 아버지에 대한 그분의 완전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항상 내 말을 듣는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둘러 서 있는 무리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요 11:42). "그리고 예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토와 친척과 그 나라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 선지자가 없느니라
그 집이… 그리고 그들의 불신을 이상히 여기셨다." 마태 6:4, 6.

(iii) 기도: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큰 소리로 제사를 드리시되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눈물과 기도 와 간구를 들으셨느니라"(히 1:1). 5:7. ㅏ
히브리서 본문의 계속은 예수의 완전한 인성에 대한 또 다른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배워야 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순종을 배우셨으니 이는 그가 아들이시라도 순종을 배우셨음이라.
그가 겪은 일"Heb. 5:8.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지혜가 더욱 자라가니라"
2:52.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수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가장 진실한 사람에게도 당혹감을 안겨줍니다.
성경 연구생. 요한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외에도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는 그랬다; 그리고 만일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쓴다면 온 세상이라도 다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록한 책들이 담겨 있느니라"(요한복음 21:25)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21 그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것은 모두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의. 한번은 베드로에게 "너는 내가 지금은 기도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내 아버지께서 내게 열두 영이 넘는 천사를 주시지 않겠다고 하였느냐?" 마태복음 26:53. 당신의
나사로의 부활에 관한 다음과 같은 말씀도 그분의 믿음을 증거합니다.
그는 눈을 들어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잘
나는 너희가 항상 내 말을 듣는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나는 주위에 있는 군중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시니
나오다. 죽은 자가 나오되 그 손과 발은 붕대로 감겨져 있었고 그 얼굴은
스카프로 싸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주어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1:41-44. 처럼
기적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추가적인 증거, 그리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증거
또 다른 사람으로도 이런 일을 당하거든 엘리야와 엘리사와 베드로와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를 살리심(왕상 17:22; 왕하 4:32-36; 행 9:39-41; 20:9-12); 엘리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빵을 많게 하였고(왕하 4:42-44), 나아만의 말씀으로 문둥병자가 나았습니다(왕하 4:42-44).
5:9, 10, 14, 15); 베드로는 믿음이 있는 동안 물 위를 걸었습니다(마 14:28-31). 폴
그분은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를 고치셨을 뿐 아니라(행 14:9, 10) 다른 질병도 고쳐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다(행 16:18; 19:11,12).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니
특별하다"(행 19:11).

예수님은 능력과 모든 면에서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한계, 그가 겪은 유혹은 모두 같았습니다.
우리는 주제입니다. "자녀는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같은 일에 참여하였으니... 그 형제들과 모든 면에서 비슷하다는 것이 그에게는 편리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사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히 1:1). 2:14,
17, 18.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으니... 모든 면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 히브리어. 4:15.

인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신성의 표현

그리스도의 인성을 연구할 때 항상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의 생애에서 일어난 신성의 초자연적 현현을 조화시키는 방법
그리스도, 그분이 100퍼센트 인간이라는 사실이요?" 이 표현 세트에서
그분의 변형과 다른 변형은 비록 정확하게 분류할 수는 없지만
그녀처럼 그들은 보통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먼저 변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를 데리고 갔더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니라
그분은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나고
빛과 같이 희어졌느니라" 마태복음 17:1, 2. 그분이 취하신 이 모습은
약 500년 전에 다니엘이 그분을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내 눈으로 보니 보라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었느니라
우파즈의 순금.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개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불꽃처럼 빛나고
광택 있는 청동;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았느니라" 단 10:5, 6.
다니엘은 성육신되기 오래 전에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설명의 일치
예수님의 변형은 제자들에게 보여진 증거였음을 계시합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소유하셨던 영광을 보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제자들에게 이런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산에 올라가서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시니라: “그가
크신 영광 가운데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우리는 이 목소리를 듣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에 그분과 함께 있을 동안 하늘로부터 지시를 받았느니라” 베드로후서 2장. 1:17, 18.

그러므로 변형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녀를 본 사도들에게 예수가 메시아임을 확신시키려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로 해석할 수도 없고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자신 안에 가지고 있던 어떤 것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분이 나빠질 거야
말씀에 나타난 그분의 완전한 인성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위에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그분도 죄에 직면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동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눈에 보이는 영광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 인지 에 대한 개념을 다시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3장. 그녀는 내적, 보이지 않는 거룩함의 외적, 가시적 표현이시다. 그리스도,
독생자는 “그분의 영광의 광채”가 되셨습니다. 1:3; 그의 것으로 이해되는 것보다
영광은 아버지 안에 계신 아버지의 거룩함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음을 가리킨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며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고후 4:4)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그렇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고후 4:6)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태어나셨을 때 거룩함과 영광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거룩함에서 나오는 영광은 그리스도께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돌아왔을 때
그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렀을 때 “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더라” 출애굽기. 34:30. 그리고 부활 후에 하
늘에 있는 성도들의 광채에 관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이니까
다른 별과 영광이 다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도 이와 같으니라.” 나 코.
15:41, 42. 그 광채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얻는 거룩함에 비례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서. 그 결과, 이성적이고 우주에서는
지성, 영광은 창조주이든 존재이든 존재의 내적 거룩함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표현한 것입니다.
생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가 존재라는 사실
인간이신데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셨다는 것이 이에 대한 증거입니다.

반복하고 요약하자면, 예수께서는 인간으로서 고유한 능력을 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흔한 것이 아닌 초자연적인 것. 거기에 일어난 일은 하나님께서 섭리로
그 아들이 강림하시기 전에 가지셨던 영광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기를 합당히 여기셨나이다
세계. 이것은 예수님의 내적 거룩함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서 사람들 가운데 방황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가리우셨으나
그분의 부활 후에 다시 완전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곳에서 그분을 보았을 때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하늘 성소에서는 그분의 얼굴이 “해가 강할 때와 같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빛난다” Apoc. 1:16.

신성한 가족

여전히 변형을 다루면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은 모든 인간이 사실상 “성도”임을 보았습니다.
개종한 사람, 즉 “새 사람”은 “진실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엡.
4:24. 즉,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합하는 모든 사람은 그분의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신성한 것. 성경은 천사들도 “거룩하다”고 선언합니다.
사람이 자기 영광으로 오리니 모든 거룩한 천사도 그와 함께 오리니…”(마 25:31). 그러므로,
하나님, 그리스도, 천사, 그리고 개종한 인간들이 하나의 대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소유한 존재의 성자. 바울은 그 점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의 아버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이라 이름을 얻었느니라”(엡 1:1). 3:14, 15. 에베소서의 이 본문에 주목하십시오.
바울은 성도의 “온 가족”이 아버지의 이름을 받음을 선언합니다.
가족은 신이다 . 그리고 시편 82편에서 그는 개종한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이다. 그러나 당신은 남자처럼 죽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처럼 넘어질 것입니다
방백들의 무리” 시 82:6, 7. 이 구절은 성도의 가족의 모든 구성원이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이거나 신성 가족의 참여자입니다. 그들은 육으로 났을 때에는
단지 인류 가족의 일원일 뿐입니다 .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너희를 보내사
그 아들의 영을 마음에 두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갈. 4:6.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에 거룩함을 심어 주시고 우리를 이미 그 가족의 일원으로 삼으셨으니
그리스도와 그분의 아들과 천사들은 신회의 가족에 속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도록 권면받았습니다. “너희 는 이렇게 기도하라 .
하늘에”(마 6:9). 우리와 천사들은 그분의 가족에 속하며 그분의 자녀입니다. 영형
“너희는 신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신성에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우리를 창조자나 전능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당신의 거룩함. 말하자면 거룩함은 신성한 가족의 “DNA”입니다. 그 브랜드
회원을 식별합니다. 이는 그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유사함을 증거합니다.

가족에 대한 이러한 개념은 우리가 예수님의 또 다른 말씀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잘못 해석되어 성경이 확립한 진리가 왜곡됩니다.
그분의 완전한 인성에 대해. 이때 그분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요한복음 10:30.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께서는 유대인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비난하신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선포하라. 그런 다음 그분은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여 동일한 의미로 응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신은 신이다"라는 용어를 발견합니다. 함께 읽어보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그분을 위해 다시 돌을 집어 들었습니다.
결석.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예로부터 많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느니라
내 아버지의; 이 중 어떤 일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돌을 던지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분께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을 하였기 때문에 당신을 돌로 치려는 것입니다. 왜냐면, 너라서
이 사람아, 너는 스스로 신이 되어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 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냐
법: 나는 말했다: 당신은 신입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성경은 폐하지 못하겠고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신 이를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너희는 신성 모독자들이라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느냐?” 요한복음 10:30-36. 예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신성의 가족.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 의 구조 뿐만 아니라 계층적 질서 도 계시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신회의 가족. 가족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사람 속에 보임이라 .
그에게 표현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로 말미암음이니라
영원하신 능력도 그의 신성과 같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창조된 것”롬. 1:18-20.

인간 가족의 시작은 아담의 창조에서 일어났습니다.
땅의 흙으로 된 사람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으니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졌지
살아 있는 영혼” 2:7.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갈비뼈 중 하나에서 이브를 생성했습니다.
그의 가슴 높이에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가
그는 잠 들었다; 그리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그 자리를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갈비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를 남자에게서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 그리고 말했다
아담: 이것은 이제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로다. 이것은 불릴 것이다
여자는 남자에게서 취하였음이니라” 2:21-23. 아담과 하와는 똑같았다
인간성. 성경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두 사람을 모두 “아담”이라고 부를 때 이를 계시합니다.
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 주었느니라
아담” 장. 5:2. 그러므로 인류에 있어서 아담은 첫째 사람이요, 둘째 사람이요,
하와는 본성과 성품이 동등하니 둘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느니라
하나님. 인류의 세 번째 사람은 가인이었습니다. “아담은 자기 아내 하와와 알았고
그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로 남자를 얻었다 하였 느니라 4:1.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열등한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더욱이 그는 나중에 반역하여 그의 형을 죽였습니다(창 4:8).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신성한 가족은 인간 가족으로부터 알려져 있습니다. 가족 중 첫 번째 사람
신성은 먼 영원에 홀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 시 90:2. 둘째는 아들이시니 곧 성령에게서 나신 그리스도이시라
하나님의 품(요 17:8; 요 1:18)과 영원의 날에도(미 5:2) 동일
하나님의 본질이요, 성품과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함(빌 2:6). 세 번째 사람
신성한 가족은 덮개 그룹, 즉 피조물인 루시퍼였으며 따라서 도덕적으로
아버지와 아들보다 열등하시다(겔 28:12-15). 그는 가인처럼 하느님께 반역했으며 그 이상을 거역했습니다.
나중에 그분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신성의 가족의 인격은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는 루시퍼였습니다. 그
쓰러졌고 가브리엘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는 가브리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보는 것” Luc. 1:19.

다음 표는 가족의 계층 구조를 비교한 표입니다.
인성과 신성.

가족:	1인칭	2인칭	3인칭
신학	하나님	그리스도	샛별
인류	아담	이브	카인

표 1: 인류 가족과 신성 가족의 계층 구조 비교

인류의 특징은 신체의 세포에 들어있는 DNA인 반면, DNA는
신회의 본질은 거룩함, 즉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경우 거룩함은
그분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인 제3자에게 있어 거룩함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혼에 심어주신 것입니다. 루시퍼와 가브리엘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천사들을 창조했습니다. 루시퍼는 반역하여 그가 받은 거룩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멈췄다
가족에 속합니다. 가브리엘은 충성을 유지하며 그녀를 지키고 그녀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보다,
그러므로 피조물은 신성함을 가짐으로써 신성의 가족에 참여한다
영혼에 심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족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 그들을 다음의 지위로 끌어올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그것은 그들이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임을 보여줄 뿐입니다. ~에
같은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 계실 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신성의 가족에 속했다는 사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신들이니라”(시편 82:6). 그러한 진술은 그분이 거룩함을 소유하셨음을 나타냅니다.
신성한 가족의 DNA이며, 그 안에서 탁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신이 된다"는 가정된 주장과의 관계. 이에 대해 그는 긍정적으로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그는 자신을 설명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요한복음 10:36)라고 선언했습니다. 즉, 당신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라는 선언은 그분의 계시의 명확성을 손상시키지도 않습니다.
완벽한 인간성.

자연의 요소에 대한 예수의 권위

그리스도의 인성을 고려할 때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또 다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분이 땅의 요소들에 대해서도 권위를 갖고 계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습니까?
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 이에 대한 예는 그분이 명령을 내리신 경우입니다.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지자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당황스러움이 일어납니다
단지 그들은 성경이 분명히 밝히는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셨느니라
본질적인 초자연적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읽어보자
보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러다가, 일어선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은
그들은 이상히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마태복음 8:26, 27.

제자들은 그들이 도달할 수 있는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믿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한 알의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야 너는 이 산더러 이르기를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그것이 지나갈 것이요 그리고 너한테는 아무것도 없을 거야
불가능하다”(마 17:20). 여호수아도 믿음으로 별들에게 명하였더니 그들이
순종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아모리 족속에게 말씀하신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붙이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그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
기브온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있도다 해가 머물고 달도 머물고 백성이 설 때까지
적들에게 복수했습니다. 이것이 야셀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다가 태양이 멈췄다
그가 하늘 한가운데에 서서 거의 하루 종일 급히 서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도다
그래서 남자의 목소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수 10:12-14).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믿음으로 명하셨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엡 2:8)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계 14:12)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
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불가능할 것이다”(마태복음 17:20).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유의 기적을 행하셨는지 연구함으로써
죽은 자의 신을 쫓아내고 자연의 요소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일,
우리는 그분께서 그 일들을 믿음 으로 이루셨다고 결론 내립니다 . 곧 그분의 아버지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그것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을 통해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깨달았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12 즉,
더 많이 작동합니다. 예수께서 지상에서 개인적으로 사역하시는 동안
유대와 그 주변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제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국가, 종족, 언어 및 민족” Apoc. 14:7. 그러므로 그분의 사역은 그분에 의해 수행됩니다.
세상 모든 곳에 있는 추종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승인하신다는 것을 증거할 것입니다.
메시지. 과거에 사도들은 “가서 두루 다니며 전파하여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나타내시느니라.”
3월 16:20. 그리고 현재에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 되리니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라 그리하면 끝이 오리라”(마 24:14).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그분의 지식

예수의 생애에 대한 분석으로 돌아가서, 그것이 전체에 걸쳐 행해졌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가능한 깊이는 끝없는 연구로 구성되어 글쓰기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책에서. 게다가 나는 이 한계 내에서 이해에 도달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제를 탐구할 수 있는 각도에서 다루는 것이 생산적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께서 사람들의 생각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전지(omniscience: 모든 것을 알고 있음)의 증거로 받아들이고, 이를 선호하여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는 그의 주장. 그러므로 아래에서 공부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믿음은 모순되며, 그렇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할 가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성경의 긍정적인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 교회의 신앙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라”라는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받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8:6. 예수께서 그에 대하여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시니라”(요 10:36). 뿐만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라고 선언하셨고, 예수께서는 기도로 그분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아는 것이니이다”(요한복음 17:3).
요점을 말하자면, 성서는 여러 차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아시고
생각, 말했다: 왜 당신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합니까?”; “그 사람은 잘 알고 있었어.
당신의 생각";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예수께서 그 마음에 있는 생각을 보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따로 세우시니라.”
(마태복음 9:4; 누가복음 6:8; 마태복음 12:25; 누가복음 9:47) 비록 이것이 놀라운 시위이기는 하지만
초자연적인 행위는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성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도 나타내셨다고 알려 줍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일어난 사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사도들을 속이려 하여 이르되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와 그의 아내 삽비라도
아내는 자신의 재산을 알고 부동산을 팔고 그 가격의 일부를 보유했습니다.
여성; 그리고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부동산 가격의 일부를 보유하시겠습니까? 당신을 위해 보관하고 있지 않았나요? 그리고 팔렸어, 아니
당신의 힘에 있었나요? 왜 이런 계획을 마음속에 세웠나요? 당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리고 거의 세 시간이 흐른 후, 그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여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값에 팔았는지 내게 말하라
그 부동산? 그리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주의 영을 시험하기로 서로 의논하였느냐? 여기 발이 있다.
그가 네 남편을 장사하고 너도 메고 갈 것이니라"(행 5:1-9).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베드로도 성취한 것입니다. 피터는 어떻게 됐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생각을 알고 계셨나요? 그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암시했다.
그것을 드러내는 도구는 "주의 영"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와 같은 사실을 밝혀 줍니다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며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느니라."
요한복음 3:34.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아는 능력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사람들은 제자들보다 예수 안에서 훨씬 더 자주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지 아니하시느니라"; 즉, 하나님은 그의 충만함을 허락하셨다.
예수께 영을.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을 "읽는"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 그것은 그분에게 고유하고 독특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남자들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구한 다양한 예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 당신, 나 또는 지구에 거주하는 다른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도 우리와 같은 입장, 같은 조건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수단을 사용하여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고 극복했습니다.
그 후에는 믿음과 기도와 성경 연구를 하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음
거룩함, 하나님께서 주신 것.

제9장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주인이 모든 것을 포기할 때.

그분의 완전한 인성과 관련된 한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전히
그러므로 그분의 기원과 관련하여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은 부모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으며,
배아는 자라서 아기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화신
그것은 시작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의 지속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느니라
다른 면으로 더 이상 아버지와 같은 몸을 갖지 아니하시고
피조물, 인간 (빌 2:5, 6).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존 침례교
요한은 예수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였느니라
1:34.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소유하셨던 영광과 위엄을 버리셨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서 독생하셨으나 여전히 그의 아들 로 남아 계시니라
어린이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인지 알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사하신 희생과 자제의 엄청난 규모는 더욱 큽니다.

요한은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겨났고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어진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으셨느니라" 요한복음 1:3. 모든 일을 행하셨듯이 아들은 작은 원자부터 원자까지 모든 일을 하신 적법한 소유자 이셨습니다.
가장 큰 행성과 별; 작은 곤충에서부터 사람과 천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만유의 상속자를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만물이 그로 말
미암아 창조되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히 1:1,
둘; 골로새서 1:16).

그분은 그분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한 권위를 갖고 계셨습니다 . 천사, 사람, 동물, 식물
모든 것이 그분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에게나 명령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 우주의 사물이나 존재는 그가 원할 때 언제든지 그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권세를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뜻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인간에게 특유한 모든 한계를 자신에게 복종시키셔야 했습니다. 이것은 보여준다
제사장의 사절들이 그분을 체포했을 때 베드로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에게 손을 대어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보라, 그들 중 한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다가 손을 펴서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쳤더라.
신부님, 그 귀를 자르세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집어넣으십시오. 왜
칼을 잡는 자는 다 칼로 죽을 것이다. 아니면 내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내가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열두 영이 넘는 천사를 주시지 않게 하실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마태복음 26:50-54.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으나
지상에서 그는 타락한 인간의 운명에 참여하기 위해 왔습니다. 동시에 죄에 직면하다
우리 모두가 직면해야 하는 지형과 위치.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은 될 것입니다
우리 구주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모범이기도 합니다.
따르다.

이 시점에서 권위 와 권력 의 차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성경은 계시한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발견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항상 그분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입니다.
너희가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긍휼을 구하는도다" 욥기 8:5;
"어쩌면 너는 하느님의 길을 얻거나 모든 것의 완전함에 도달할지도 모른다.
강한?" 욥기 11:7;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손을 펴며 전능자를 향하여
화났어." 욥기 15:25; "그리하면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며 얼굴을 들 것이라
신께." 욥기 22:26;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느니라."
욥기 23:16. (참조: 창 28:3; 출 3:6; 민 24:4, 16; 욥 5:17; 13:3; 22:17; 25:13;
27:2, 13; 34:10, 12; 40:2; Apoc. 16:7). 성경은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는 이르시되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여." 고린도후서 6:18

이 주제에 관해서도 특별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계시록의 본문입니다.
이 구절은 동시에 하나님을 전능자 와 어린 양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둘 사이의 차이점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성전이심이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양이시라" Apoc. 21:22. 참고: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양"이십니다. 어린 양은 자기의 것을 받으셨으나 전능자가 아니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어떤 사람들은 Apoc의 텍스트를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 혼란스러워합니다. 1:8: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며
시작과 끝이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오세요, 전능자님." Apoc. 1:8. 그들은 본문이 그리스도에 관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독서
문맥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가 아버지를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무엇이고, 과거에는 무엇이었으며, 장차 올 것은 무엇인가". 이 표현은 결코 결코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존재를 가리킨다.
존재의 끝은 있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현재(현재), 과거(과거) 및 미래(이)
올 것이다). 예수께서는 같은 장에서 자신의 존재를 끝내신 분임을 스스로 밝히셨습니다.
- 죽임을 당함: "나는… 살아 있는 자요 죽임을 당함을 받은 자니 보라 내가 영원히 살아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나는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Apoc. 1:17, 18. 비교에 유의하십시오.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그것은	그리하면 올 것이 다(계시록 1:8)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예수 (아들)	살아 있는	나는 살해당했다	나는 영원히 살아있다 (계시록 1:18)

표 2: “전능자”와 예수의 차이점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전능자”는 오직 아버지만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서 7장 3절에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하는 날이 있고 생명의 끝이 없느니라.” 이 설명은 그분에게만 적용됩니다.
그와는 반대로, 예수님에게는 아버지(하나님)가 있었고 그의 생애는 끝났습니다(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이
주 하나님 곧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이시라.” Apoc. 4:8.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권위를 소유하셨지만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일하셨듯이, 그분의
명령은 그분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취시키실 것입니다. 무엇
이 장의 뒷부분에서 살펴보겠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해하려면 먼저 각 장에서 학습한 개념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에게 적용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 즉 “말씀”이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하나님 안에 계셨느니라”(요한복음 1:1, 그리스어 원문). “모든 일이 그랬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그분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3,
18. 말씀이 생각에 속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계셨으니 곧 아버지의 생각이니라
"언어화". 즉, 그리스도는 말씀을 전하는 전령 자이셨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지구가 창조된 주간에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 들리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이더라.

한 성서 설교자는 “소리는 우리의 것이지만 말씀은 하느님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하나
이 예는 그분과 그분의 아들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말은 그분의 것이지만 음성은
그것을 전달하는 이는 아들의 것이니라. 성서는 이런 일이 발생한 여러 경우를 보고합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보고서를 읽을 때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이러한 연합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다른 의미에서는. 우리는 이 책의 앞부분에서 이에 대한 예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모세. Estevão는 그 순간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시내산 광야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떨기나무… 이르시기를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라”(행 7:30, 32).
모세에게 나타난 이는 하나님 이 아니라 (고전 8:6) 그분의 “천사”이신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전령자, 즉 말씀 으로서 아버지의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너희 조상의 하나님..." 그때부터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셨을 것임을 이해하십시오.
이는 그분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친히 주신 간증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원하신 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당신이 보낸 사람." 요한복음 17:3.

요점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를 소유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주의 모든 존재와 요소에 대해; 그러나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뜻은 아버지의 뜻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명령은 하나님의 보좌의 뒷받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결정을 존중하셨고
아들의 말씀을 그의 능력으로 성취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권위는
하늘과 땅에서 나에게 주신 것이니라"(마 28:18). 그러나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만유이셨다.
강력하다(계 4:8).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존재하는 긴밀한 연합과 조화로 인해,
많은 생물, 특히 인간은 소유와 소유의 차이를 구별합니다.
모든 "권위"와 모든 "권세". 그러나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빛이 있으라"(창 1:3). 그러나 빛을 존재하게 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신 여호와시니"(시 118:27).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를 받으셨으니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며, 그 작용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그의 아들의 권위를 유지하신다.
우주. 그리고 아들은 항상 아버지와 목적의 조화를 이루며 일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요한복음 10:29)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이셨다.
(마 3:17) 그 사람의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말씀을 기뻐하시는 자
그분의 능력이 놀랍게 나타나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기뻐합니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모든 것과 그보다 더 큰 일을 아들에게 보이시느니라.
그가 이것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니 너희로 놀랍게 여기리라." 요한복음 5:20.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한 바에 따르면, 비록 그분은 "전능자"는 아니었지만,
아들이 하나님 자신의 지원을 받아 모든 것에 대해 무한한 권위를 그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존재와 요소. 그러나 아버지와 합의한 계획에 따라
그는 언제라도 그것을 그분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고려하면
그가 겪어야 할 굴욕과 고통,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 겪게 되는 고통
고난을 피하는 것은 그분이 자신의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고 싶은 큰 유혹이 될 것입니다 . 개미와 같
아서 너무 약해서
언제든지 지배할 수 있었고 계속해서 당신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반응하지 않고 고통을 참아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땅에 돌멩이를 던지면 힘을 쓰고 싶은 유혹이 생길 만큼 고통을 없애세요.
거의 저항할 수 없는 문제를 제거합니다.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고난을 인내하셔야 하셨습니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이러한 성격의 유혹은 무한한 강도로 나타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았고 가장
사람들 가운데 버림받은 사람이요, 슬픔을 많이 겪은 사람이요, 수고를 겪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로서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그에게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진실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자신에 대해; 우리는 그분이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맞으며 억압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상처받았어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상함을 입었나이다. 영형
그가 형벌을 받아 우리를 화평하게 하였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었습니다. 각자 길을 잃었다
길;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그는 억압받았고
고난을 받으셨으나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니 어린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양이 털 깎는 자 앞에 있어서 입을 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사. 53:3-7.
오 하늘이여, 놀랍습니다. 놀라라, 오 사람들아!

이 점은 남성들에 의해 거의 이해되지 않았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좋았어
사탄은 그것을 분별하며, 이는 그가 유혹을 통해 분명히 인식됩니다.
제시.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십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시며 심한 고통을 받으시니라
배고파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으로”(마 4:3). 우리가 연구한 바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유혹이었습니다. 그
빵으로 변화시키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대에
하나님과 교통함으로써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의 사명이 무엇인지가 그분께 계시되었습니다. 영형
사도 요한은 이렇게 확언합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니라...” 요한복음 13:3.

사탄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지위와 영광을 알았으므로 다음과 같이 이해했습니다.
시험의 세력이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 하나님의 아들에게 임하게 하느니라
그분의 짐을 가볍게 하는 자신의 권세. 이는 청와대가 주장하는 바에 의해 입증된다.
예수님의 삶의 여러 순간, 특히 마지막 순간에 제시되었습니다. 언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손과 발에 못이 박혀 계셨습니다.
그분의 귀에는 “네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조롱 소리가 들렸습니다.
3월 15:30;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다시 짓는 자여, 너 자신을 구원하여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느니라.
만약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거든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겠노라.” 마태 27:40, 42; “그리스도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하소서”(막 15:32).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못을 꺼내라고 명령할 수도 있어
그분의 손과 십자가 나무에 부드럽게 기대어 그분을 눕히셨습니다.
그분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려고; 인간의 몸에도 명령을 내리실 수 있으셨고
생명체가 스스로 회복하고 즉시 모든 상처를 아물 수 있도록 말이죠. 할 수 있었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모든 인간의 적들, 심지어 사탄에게도 잠잠하라고 명령하십시오.
심지어 그곳에서 사형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기 " 때문입니다. 안부
1:16. 그러나 만일 그가 그렇게 한다면 그는 우리를 운명, 즉 죽음에 내맡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죄의 삯.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의 이성과 마음에 호소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요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를 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가장 어려운 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오직 이것만이 사랑으로 가득 찬 신성한 성품을 보여줄 수 있고, 모든 피조물의 절대적인 충성을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정
복할 수 있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사랑은 고난을 받고 온유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모든 일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리고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느니라"고전 13:4-8.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동시에 매력적이고,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고, 설득력 있고, 강력합니다.
악한 정욕을 제압하고 악을 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먼저 내려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수고와 고난의 잔을 가지사 영원까지 마셨느니라
배설물 - 우리는 그러한 것에 의해 제공되는 죄로부터 완전하고 광범위하며 완전한 구원을 얻습니다.
넘치는 은혜로 모든 더러움과 죄를 씻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십자가를 버리기로 한 결정의 결과를 계속 분석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만일 예수께서 그것을 취하시면 그는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리라
왜냐하면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요일 3:4).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께서 거기에 굴복하신다면 구속의 계획은 실패하
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 하나님의 정부가
유지된다면 "죄를 짓는 그 영혼은 죽을 것이다"(겔)라는 그분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할 것입니다.
18:20. 따라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계명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셨다면;
아버지께서 따라가신 굴욕과 고통의 길; 만일 그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만일 하나님의 정부가 보존된다면 그분 자신의 생명은 상실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니오
완벽한 계획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히지 않고 탈출했습니다.
구속과 그리스도 자신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쉽지 않았다는 것을 반복합니다. 희생의 끝까지 나아가기 위해 그가 겪은 투쟁
전날 밤에 한 말에 가장 잘 표현됩니다. 죄를 지었을 때
세상의 것과 그에 따른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의 분리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분에 관해 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막 14:34).
그래서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한 후 그 부르짖음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온 힘을 다해 고통을 피하는 그분의 인간 본성에 대해 말입니다.
그분은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나에게서 이 잔을 치워라.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것입니다." 3월 14:36. 우리의 잔
구원이 그분의 손 안에서 떨렸습니다. 믿음으로 아버지의 능력을 붙잡고 "가며"
두 번째로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나 없이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마시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제자들)을 다시 만나시니라
죽어; 그의 눈이 무거웠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6:42. 최고로
노력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의 영혼의 부르짖음은: 당신이 아니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을 하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떠나 세 번째로 가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단어." 마태복음 26:42-44.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간구하는 소리가 들으셨느니라"(히 1:1). 5:7. 권위에 의한 것이 아닌 승리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리를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남자로서 지위와 한계에 있어서
인간의 본성에 특유한 절대적인 것. 즉, 직면
유혹은 우리와 같은 입장에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을 그보다 훨씬 더 크게 형성합니다
그분의 지위와 권위가 우리보다 우월한 만큼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는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고난의 고통도 참으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채찍과 십자가의 못. 온 세상의 죄의 무게가 그에게 지워졌으니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이사. 53:6. 즉, 그는 이겼다.
죄는 우리 중 누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어려운 시험을 받았습니다.
결코 직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수단을 사용하여 승리했습니다.
제공되는 것: 성경, 믿음, 기도.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었으니...그가 육신에 죄를 정하사", 인간에게 불법이라고 선언하셨으니, "행하지 아니하는 우리에
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되 영을 따르느니라"; 그것은 우리가 순종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롬 8:3, 4).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은 그분의 완전한 거룩함과 연합되어 있으며,
권위는 완전히 유익하고 무궁무진한 연구 분야입니다. 따라서 다음을 입력하십시오.
솔로몬은 그분에 관해 다른 이유들로도 증언했습니다. 5:16.
결과적으로 십자가의 장엄한 희생은 구원받은 자들의 지식과 노래가 될 것입니다
영원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8. 그래서,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다른 각도에서 분석해 나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우리는 지금까지의 각 측면에서 연구해야 할 깊이의 바다를 남겨 둡니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 육체라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9.
그러므로 지식의 모든 경이로움에 모든 영예와 영광과 찬미가 있으리로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는 독특하고
오직 하나님과 그의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께만! 즉, 우리는
다음 장에서는 모든 사람을 예배할 수 있는 예수님의 권리를 뒷받침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생물.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제10장

모든 피조물을 숭배할 수 있는 예수의 권리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주제입니다. 단순한 추론에 사로잡혀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그들에게 "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 만이 예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들은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우리가 예배해야 할 것은 성경에서 가르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을 예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
우리 자신을 경배하고 엎드리자.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시 95:6. "오직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 모든 성신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당신을 경배합니다." 님. 9:6.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골 1:16).

우리는 또한 그분의 거룩 하심으로 인해 그분을 경배합니다.
신성한 것;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시 96:9. 이 구절과 시편 전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주'를 가리킨다. " 여호와를 경배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거룩하심. 왜냐하면 그분은 "그 본체의 형상"이셨기 때문입니다. 1:3.

우리가 예배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친절" 때문입니다.
후자는 그분이 우리의 유익을 생각하신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텍스트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불이 오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있는 것을 보았느니라"
집에서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니라
주여 가라사대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둘
만성. 7:3. 예레미야는 그리스도를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 3:25; Jer. 33:11. 그리스도는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느니라"(롬 1:1). 고린도전서 8:39,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며" 고전 13:4.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자격을 갖추신 속성을 소유하셨습니다.
좋아한다. 그분은 성육신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 그대로 남아 있었어
- 모든 것의 창조주, 아버지만큼 거룩하시고 아버지께 선하고 자비로우신 분
생물. 그렇지 않다면 예수는 성육신한 그리스도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사람의 아들, 그는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었습니다. 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죄를 짓지 않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분석해 보면 제자들이
그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고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다음과 같이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함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아들을 믿느냐
신의 것?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를 믿겠나이까? 그리고 예수
말했다: 당신은 이미 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에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 요한복음 9:35-38. “이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나아와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로다 하더
라.” 마태복음 14:33. 의 경우에도
귀신 들렸으니 그가 그에게 경배할 때에 그를 붙들었던 귀신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언하더라
하나님: “그리고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가 그분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며,
그는 말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신에 의해 당신을 연상시킵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마가 5:6, 7. 이 기록은 우리가 연구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우리가 성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께서 하나님께 합당한 분이 되시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이 되셔야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배. 그 이유는 그가 “신”은 아니더라도 다음과 같은 속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피조물로부터 이러한 경의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친히 명령하시기를 “장자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을 경배하라.” 히브리어. 1:6.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또한 그분을 예배받기에 합당하게 만드는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창조주님, 그분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십니다. 성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알려 줍니다. 3:9.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펴시며 땅과 그 모든 소산을 펴셨으며 무엇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흡을 주고, 거기에 행하는 이들에게 영을 주소서.” 이사. 42:5.
“신들 중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 136:2. 그리고,
절대적 또는 엄격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유일한 선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느니라.” 3월 10:18. 무엇으로 이해되는가
즉, 영원하신 하나님, 최초의 존재이신 하나님이 선의 근원이라는 뜻이다. 같은
아버지와 동일한 선함을 소유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뚜렷한 형상으로 태어나셨느니라”
사람”(히 1:3)을 선의 근원 으로 볼 수는 없다 . 생성되었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께 받은 것을.

성경은 예수께서 땅을 여행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는
좋다” 요한복음 7:12. 그러나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선함은 본래 아버지 안에 있었느니라.
영원의 날에 아들이 태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오직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라”(마가복음 10:18)는 엄밀하고 절대적인 의미에서 오직 그분의 아버지만이
좋다." 인간은 스스로 전체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있어야 한다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그 점을 깨달았습니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게다가 같은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원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부자청년이 한 칭찬을 그분에게서 다른 곳으로 돌리십시오. 만일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분은 도달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 청년은 이렇게 말하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이 땅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까?
영생?" 3월 10:17. "좋은"이라는 형용사의 사용은 일반적으로 다음을 반영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칭찬함으로써 대화를 시작하는 정책
자발적인. 그것은 예수에게 적합한 반응을 일으키려는 계산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리한.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도달하고 싶었다.
마음. 그 청년이 완전히 항복한 마음으로 그분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어쩌면 그의 말을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지만
신자들은 그분에 대해 “그분은 선하시다”(요한복음 7:12)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받아들여라
그렇게 하면 청년을 가르치려는 그분의 의도가 약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칭찬을 회피했지만,
그분의 성품과 조화를 이루는 예의 바르고 사랑이 넘치는 태도. 찬양을 아버지께 보내셨으니
절대적인 의미에서 좋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이러면 안 된다.
이는 예수님 자신이 “선하지 않다”는 고백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의미는 아니다
이 하나. 이것에 대한 증거는 또 다른 경우에 예수께서 친히 이 형용사를 자신에게 적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11, 14.

이 장의 중심 요점으로 돌아가면, 예배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이지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모든 생물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말하되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곧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무궁토록 주소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세부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숭배를 받기는 하지만
피조물 중에서 오직 아버지만이 하나님으로 경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아 엎드려 얼굴을 대고 경배하여
하나님께” Apoc. 11:16. 천사는 요한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라”(Apoc)고 긍정적으로 선언했습니다. 19:10.
요한은 또한 예수께서 보좌에서 음성을 불러 이르시되 우리를 찬양하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당신들, 그분의 모든 종들, 그리고 크고 작은 자들을 막론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여러분. 그리고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천둥소리처럼 “할렐루야!”라고 외칩니다. 이제는 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강력한 통치를 하십니다.” Apoc. 19:5, 6. 시편 필자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신들 중의 하느님을 찬양하십시오. 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 136:2.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합당하고
예배를 받아야 한다면, 최고의 숭배는 오직 아버지께만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예배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10;
루크. 4:8(개정 및 업데이트된 미국역 성경). 우리는 컬트를 언급해야합니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 골로새 3:17.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자존하시며 창조되지 아니하시고
나지 아니하시고 만유와 만유의 근본이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최고의 숭배를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를 얕보는 것이 아닙니다. 뭐, 참 좋은 아들이네
자기 아버지를 집의 가장으로 공경하지 아니하며 공경하지 아니하며 항상
집에서 가장 좋은 자리인가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반복할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점에서 성경의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과 모순됩니다.
"인간의 논리". 논리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이 아닙니다 .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아버지이시니라”고전 8:6.
인간의 생각의 논리를 따르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들은
“능히 너희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성경”(딤후 3:15). 성경,
오직 그 안에만 영생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진실은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숭배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즉, 그가 '신'이 아니라는 사실은 그의 것이 아니다.
단점. 이 가르침은 그분의 인격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계획과
그분과 하나님이 그분의 참된 빛 안에서 치르신 희생은 오류의 어둠과
그들이 보여준 사랑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는 미신의 문제입니다.

예배할 권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다른 특권도 있습니다.
구원의 계획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은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
을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주의 참된 성품을 깨닫고 그분께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진실과 일치합니다. 우리는 다음 장에서 그 중 하나를 다룰 것입니다 :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제11장

죄를 용서하는 예수님의 권세

“이제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실새 거기 있었더니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갈릴리와 유대와 온 촌에서 나왔는데
예루살렘.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여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다가 몇몇이 왔어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중풍병자를 침대에 데려오는 남자들; 그를 끌어다가 앞에 세우려고 했으나
예수. 무리 때문에 그를 데리고 들어갈 길을 찾지 못하시고 지붕으로 올라가시니라
그들은 침상 위 기와 사이로 예수 앞 중앙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면,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추리하여 이르되,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누가 용서할 수 있겠는가
죄, 만약 신이 아니라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당신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당신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또는 : 일어나서 걸을 것인가? 그러나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 -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서 양을 가지라
침대에 누워서 집에 가세요." 루크. 5:17-24 (개정 및 업데이트된 미국 번역).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적들이었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이 됨"으로 죄를 용서하는 권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이르되
말하되, 신성모독을 말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라면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예수께서는 그들의 비난을 확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이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전에,
다만 자기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나타내셨을 뿐이니라
그 기반이 무엇인지에 관계없이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용서하는 그분의 권위의 기초는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인간의 논리로 그리스도를 평가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성경 안에 두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다음에 할 일입니다.

성서는 이렇게 알려 줍니다. "자비와 용서는 주 우리 하느님께 속합니다 .
우리가 그를 배반하였음이니라" 단 9:9.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에게 용서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죄는 그분의 말씀으로 분명히 이해되었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느니라(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비): 일어나 네 자리를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마태복음 9:6. 기적은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ㅏ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모든 선지자가 증거하되 그 안에 있는 자마다
믿으면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0:43.

그러나 이 권위는 아들에게 고유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긍정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 셨으니" 마태복음 28:18. 즉, 모든 권한
(죄를 용서하는 일을 포함하여) 아버지에게서 비롯되었으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용서할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것이 허락된 이유는 천사가 요셉에게 한 말에 나옵니다.
그녀가 구주의 탄생을 알렸을 때: "그리고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름은 예수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임이니라." 마태복음 1:21. 측면에서
구원은 예수께서 "그의 몸에 성령을 짊어지고 죽으실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우리 죄를 나무에 달아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의를 위하여” 베드로전서 1장. 2:24.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구원의 말씀에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요구되는 죽음을 치르실 것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분은 우리를 위해 용서를 얻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분은 그분의 희생이 유효하도록 아버지께 간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은 John의 편지에서 확인됩니다.
하나님께서 “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 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1서 4:10. 영형
“속죄”라는 용어는 용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 때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주님께로 올라갈 것입니다. 혹 내가 네 죄를 속하리라” 32:30. 그리고 그는 그렇
게 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금 신들을 만들어 큰 죄를 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
서 .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십시오.” 이동. 32:31, 32.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통해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다른 사람들의 죄도 위함이라
세계적인." 요한1서 2:2.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용서할 권리를 얻으셨습니다.
“주께서 높은 데 오르시며 포로된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에게서 선물을 받으시며 심지어 사람에게서도 받으시나니
반역자들”(시 68:18). 그리고 전액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 권한도 받았습니다.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원한; 그러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함을 보리라
유적." 요한복음 3:36.

우리가 본 바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을 아버지께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세워진 계획에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며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 무한한 희생으로 그분이 희생하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권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원하는.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 신실하신 한,
구속의 계획 내에서 동일한 계획에 의해 계속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용서할 권리. 그의 기간 동안 허락된 용서 선언
지상에서의 사역과 이전의 십자가는 축복을 “미리 맛본 것”이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의 그분의 희생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확신의 표현,
하나님과 그분은 희생을 완수할 때까지 그분의 사명에 실패하지 않으실 것을 소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는 오직 구원 후에만 완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희생, 예수께서 이전에 하신 모든 말씀: “네 죄는 용서받았느니라.
죄”는 그분이 승리하실 때 소유하신 완전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믿음은
그분은 이를 귀한 “하나님의 선물”(엡 1:11)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제공하십니다. 2:8; 그리고 우리는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일도 승리할 것을 확신할 것입니다. 그는 ~였다
이 믿음을 소유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도 없고.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지금 것이나 지금 것이나
미래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갈라 놓지 못하리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ROM. 8:38, 39. 그리고 모두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지상에 오시기 전에 살았던 족장들과 선지자들,
하늘로 올려져 간 에녹, 모세, 엘리야는 죄 사함을 받았고
이 믿음으로 인해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보장되었습니다. 우리도 받을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본성이라는 주제로 돌아가서, 우리는 그분의 권위가 다음과 같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죄를 용서한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뜻을 지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 하나님”이라고 잘못 부르는 척합니다.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남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아버지이시니라”(고전 8:6). 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모든 공로를 갖고 계셨습니다. 빛의
십자가를 지려면 어느 누구도, 심지어 마귀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용서해주세요.

예수님은 죄에 대한 승리를 통해 이 권리를 얻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인간 존재 전반에 걸쳐 외적 갈등 과
예수님의 죄와의 내적 갈등 .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범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히 이 연구를 통해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악과의 갈등. 그 일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제12장

예수 그리스도의 죄와의 외적 갈등

성경은 예수께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다”고 긍정적으로 선언합니다.
4:15. 그도 우리처럼 유혹에 직면했습니다. 즉, 같은 땅과 같은 곳에
정황. 우리의 신체적 한계,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
특히 피로의 무게에 시달릴 때; 걱정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고통, 패배, 굴욕의 고통. 이러한 모든 테스트 상황은
사탄은 우리가 화를 내거나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익을 추구하거나 손실과 고통을 피하는 계명, 예수
또한 고통 받았다. 다음은 몇 가지 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마태복음 4:1. "그리고 사십 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니라 그 기간 동안에
며칠 동안 그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신 뒤에는 배가 고프셨습니다." 루크. 4:2. "그리고 주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중에 예수를 잡으려고 하여 알아보다가 사람을 보내어
의로운 체하는 정탐꾼들이 예수를 어떤 말로 붙잡아 하나님의 손에 넘겨 주려고 하였더니
대통령의 관할권과 권한. 그들이 예수께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그것을 아나이다
당신께서는 바르고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의 외모를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조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의 간계를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루크. 20:19-23. 예수
그분은 배고픔과 마귀의 간교함과 인간의 위선에 직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무엇 때문에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셨으나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히브리어. 2:18.

우리에게는 특별히 다른 갈등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대면합니다. 이전에는 그분의 시험이 우리의 시험보다 훨씬 우월했음이 분명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그분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슬프다 . 여기 머물면서 지켜보세요." 3월 14:34.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떠나셨다.
돌을 던질 때쯤;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지나가시옵소서
이 잔은 나에게서 온 것이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그는 괴로워서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땀이 큰 물방울처럼 되어서
피가 바닥으로 흘러내렸어요." 루크. 22:44.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그 아래 몸을 굽히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의 무게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과의 힘든 갈등을 예견하고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얼굴을 보고 놀랐다.
누구보다 일그러지고, 누구보다 그의 모습이
사람의 아들들." 이사. 52:14.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그 동안 악마의 활동은
그리스도의 사역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렬했습니다. 에서
구약성서에는 악마의 활동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몇 안 되는 사례 중 하나는 사울의 경우입니다.
그가 사울에게서 악령을 쫓아내시매 악신이 그를 괴롭게 하니라"(삼상 11:1). 16:14. 반면,
복음서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는 수많은 사례를 제시합니다.
가다라 사람들과 같으니 벙어리와 미치광이 소년과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요
다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서
나는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사나워서 아무도 없었어
나는 그쪽으로 갈 수 있었다. 보라,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예수,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그는 방목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는 많은 돼지 떼가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어 저 돼지 떼에 들어가게 허락하시나이다." 마태복음 8:28-31. "그리고,
그들이 떠난 후에 말 못하는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추방됨
마귀가 벙어리에게 말하니" 마 9:32, 33. "예수께서 자기에게서 나온 마귀를 꾸짖으시되
그 때부터 아이가 나았다." 마태복음 17:18. "이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으로 이르시되
가다; 악마는 이미 당신의 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가보니 자기 딸이 바닥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악마는 이미 떠났다고 하더군요." 마가복음 7:29, 30. "그들의 회당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더러운 영 들린 사람이 이르되, 아! 우리가 당신과 함께 가지고 있는 것, 예수
나사렛 사람? 우리를 멸망시키러 왔느냐?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꾸짖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라 그러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시며 그에게서 나오시니라... 또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더라
각종 병에 걸리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귀신들린 것은 그를 아는 까닭이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전파하시니
귀신을 쫓아내라." 마가복음 1:23-26, 34, 39.

이전과 이후의 성경 기록을 통해 우리는 결코
예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과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악마의 활동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악의 세력이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이기고자 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싸우느니라.

사탄에게는 모든 것이 위태로워졌습니다. 만일 그가 패배했다면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을 것이다
그를 심판하여 불못에 던지는 권세를 가졌으니 이는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순종에 이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그분의 승리와 구원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심지어 사탄 자신도 심판하실 것이라고 보증하셨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로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으니
그분이 예정하신 사람을 통하여;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확실하게 하시고 그를 만민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죽은." 사도행전 17:30, 31. "죄를 지은 천사들"은 "심판을 위해 남겨 두었습니다"(베드로 둘째
3:4) 이 일은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고…
심판하는 권세가 있으니 그가 인자임이니라." 요한복음 5:22, 27. 즉,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죄와 마귀를 정복하셨기 때문에 모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가까이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말하는 것을 보았다고 전합니다.
미래에서 악마들이 최후의 형벌을 받을 때까지의 장면이 담긴 두루마리를 펴십시오.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라 이는 네가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였음이니라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나이다." 5:9.

사탄과 그의 귀신들이 그들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알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패배시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의 죄와의 외적 갈등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그분의 사명의 중요성이 우리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혹의 강도 는
그리스도의 고통은 다른 어떤 인간이 경험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일한 포인트
그분의 외적 갈등을 우리의 갈등 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것은
유혹. 이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과 똑같습니다. 행동하라는 강한 압력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저항하십시오.

이 놀라운 갈등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의 일부입니다.
"천사들도 보기를 원하는 것"(베드로전서 1장) 1:12. 그리고 우리 남자들은 할 수 있고
우리는 경건하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계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그의 능력은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을 만큼 충분합니다.
우리 자신도 결코 고통받지 않을 이 같은 힘의 도움으로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능력을 붙잡는 이 믿음은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산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엡 2:8). 그 분이 주신 선물!
우리는 이 은사를 받아들일 수 있고, 이를 통해 모든 유혹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승리는 우리 것이다!
바울이 말했듯이 "이 모든 일에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한 사람." ROM. 8:37.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면하신 갈등에 대한 분석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은 마귀와 마귀들이 겪는 모든 외적 압력에 직면한 그분의 내적 갈등이었습니다.
나쁜 남자 - 다음 장에서.

제13장

예수 그리스도의 죄와의 내적 갈등

예수 그리스도의 죄와 내적 갈등에 대한 분석은
예수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었다는 성경적 개념 . 신이라면 그럴 수 없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받을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모. 1:13. 만약 예수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이었다면
그분은 죄와 내적으로 갈등을 겪지 않으실 것이며,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똑같이 공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일단 그리스도 예수가 "사람"이라는 것이 확증되면(나는
디모데서 2:5); 우리는 이 주제가 연구할 수 있는 유익한 분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 으나 죄는 없으시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4:15.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유혹을 받는지 설명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유혹을 받고
자기 욕심에 속았느니라." 이모. 1:14. 피할 수 없는 결론은 그가 그랬다는 것이다.
"그의 정욕에 이끌려." 이 표현은 강렬하고 심지어
많은 기독교인에게는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육체의 욕심을 가졌느냐?" 하지만 이 스캔들은 결과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욕망"이라는 단어가
물질에 대한 탐욕과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해 보면 원문의 의미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건. "욕망"으로 번역된 단어는 상피 증(epithymia)입니다. 그리고 에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구절은 "탐심"으로 번역됩니다. '금지된 것에 대한 갈망, 갈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
은 "의지"와 동의어이다. 인간으로서 예수께서 소유하셨다는 것
아버지의 뜻과 다른 욕망이 있다는 것은 여러 구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말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보내줘." 요한복음 6:38.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원하시면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나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루크. 22:42. 여기에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와 유사함을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를 성취시킵니다.
그들을 이기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들을 아버지께 복종시키십시오.

이 계시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내적 갈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 부분적으로, 죄에 대한 그분의 마음의 적개심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랬기 때문이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므로 그는 그와 똑같은 거룩함과 악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소유되었고 천국에 있었습니다. 그는 "성인"이었으며 성육신했을 때 그 존재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그는 "거룩"하게 태어나셨느니라(눅 1:35).
그러나 부분적으로 그분의 죄와의 내적 갈등은 우리의 갈등과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욕망이 있었고, 그것을 통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가지실 것이라는 생각을 거부하는 일반적인 이유
죄악된 욕망을 가졌는데,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혼란의 결과입니다.
죄 와 함께 "욕망" . 육체의 욕망이나 뜻이 그렇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지배적이다; 즉, 우리가 그를 환영하고 애무할 때입니다. 기록되었으되 "그러므로 탐심이여,
잉태 한 후에 죄를 낳느니라" 이모. 1:15.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있지만,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 위에 둥지를 짓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존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
유혹을 받지만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싸울 수 있습니다." 비록 예수의 경우에는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하나님이 지시한 길에서 벗어나려는 욕망이나 의지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굴복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일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여 피 흘리기까지 대적하였습니다.
컵;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괴로워하며 더욱 기도하여
강렬하게. 그리고 그의 땀이 큰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흘러내렸느니라.
바닥." 루크. 22:42, 44. 예수께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제사하여” 승리하셨습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기도와 간구를 드렸느니라” 그리고 “그가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그분께서는 고난을 겪으면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히브리어. 5:7, 8. 그리고 그는 “가까이 오너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요 내게는 아무 관계도 없느니라”(요한복음 14:30). 악마는 찾지 못했어
그들의 유혹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받아들여질 만한 지지점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과 그의 마귀들도 끊임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죄를 암시하고, 우리 안에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키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집니다. 그분은 창세기에서 하와와 함께 이 일을 하셨습니다.
여자: 당신은 절대 죽지 않을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리라. 그리고 그는 그 여자를 보았다.
그 나무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기에도 탐스럽기도 한 나무니라
이해를 주십시오;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3:4-6. 사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금단의 나무의 열매는 “깨닫게 하려 함이라”. 속아넘어가는 이브
그는 그 열매에서 거기에는 없었던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악마가 그녀에게 음식을 먹고 싶은 욕망을 불어넣었습니다.
과일. “그러므로 탐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느니라” 이모. 1:15. 그리고 그녀는
그는 먹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오늘날까지 반복되어 우리는 이를 방지할 수 없습니다.
욕망은 우리 마음 속에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육체와 그 정욕과 욕망이 있느니라.” 여자. 5:24.

죄와의 내적 갈등이라는 주제를 더 탐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더욱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빛의 새로운 뉘앙스. 본문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시험을 받으실 수 없으시니라.
악을 위해” 이모. 1:13. 그는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된 분명한 결론을 제시합니다.
우주의 창조자.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시며 그의 뜻이 되십니다.
그것은 모든 피조물에게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십계명에서 그것을 계시하셨습니다. 에 있음
로마서 7장 13절에서 성경은 율법이 “선하다”고 말합니다. 법이 "좋은 것"이라면, 법을 어기는 것은
나쁜. 즉, 악은 죄이다. 즉, 선은 의지의 성취이다.
신과 악에 대해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어긋나게 유혹을 받으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좋은. 그러므로 그분이 악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하나님이 자신의 뜻에 반하여 행동하기를 원하신다고 가정하는 것은 유혹적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
우리 자신은 천성적으로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일을 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갔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1:26.

이 모든 것이 처음에는 단순한 신학적 추론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로
이러한 이해의 의미는 엄청나며 사랑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그것은 갈보리에서 나오는 빛을 통해서만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갑시다
이 미스터리를 더 깊이 탐구하기 전에 몇 가지 사실을 확립하십시오. 희생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으니...
그리하여 세상이 그분으로 인해 구원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한복음 3:17; 요한일서
4:9). 그러므로 그분은 그분의 뜻을 표현하는 율법의 성취이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사랑이니라"롬. 13:10.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시고 큰 고통을 받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그곳에서 데리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분은 그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하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
3:16. 그분은 그분의 아들을 뵙기 위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려 놓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 매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계시를 조금 더 탐구하여, 그것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창 1:26)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우리는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자연스러운 욕망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렇지 않으시다.
나는 그 위대하고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희생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없이
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 일을 완수하겠다는 결심을 굳게 지켰다.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는 온 세상의 죄의 무게로 괴로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만일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마태복음 26:39). 하나님은 손에서 잔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준 거야.
그것을 마실 힘: "그리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 그를 강하게 하였느니라." 루크. 22:43. 작은
그 후에 예수께서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매달리실 때 모든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에게 던져진 사탄과 악한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그곳에서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덜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희망이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야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 나는 우리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좋은 은사와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오나니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티아고
1:17.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좋은 선물", 즉 "완전한 선물"은 그분의 생명이었습니다.
아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8. 이것이 그분의 본성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변할 수 없는 확고하고 변함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고통을 받습니다... 모든 것이
영속하고" "영원히 끝나지 아니"한다(고전 13:7, 8).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이제 이 희생에 직면한 아들의 입장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을 때 아버지와 동일한 거룩함과 사랑을 소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니라(롬 8:39). 더욱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도 다스리시니 그 뜻이 아버지와 같으니
그것은 또한 피조물을 위한 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율법이요 선한 뜻이 악을 행하는 것과 같이 그 아들에게도 이와 같으니라
오직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과 같이 악에게 시험을 받으실 수 없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유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분이 유혹을 받으시려면 피조물이 되셔야 했습니다. 반면 신과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주신 분이셨다. 왜냐하면 율법은 그분의 뜻의 표현이었기 때문이다.
피조물은 법의 대상 이었습니다 . 즉, 당신의 의지가 반드시 다른 사람의 의지와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은 자유 선택권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법을 준수하거나 위반하기를 원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기. 이에 대한 증거는 사탄과 그의 천사들과 사람들이 죄를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유 1:6; 창 3:6) 반면에 다른 천사들은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화신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되시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의 몸을 가지셨습니다(히 10:5).
결과적으로 인간의 마음. 그러면 그분은 율법의 주체가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 태어난 여자 ” 갈. 4:4. 이제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법으로 존재하고
그것은 더 이상 그분의 뜻을 단순히 표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퇴각하는 성격으로 존재했다.
고통의. 이런 상황에서 순종을 유지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일에 헌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과 비슷하게 자신과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몸을 종으로 삼아”고전 9:27. Paulo는 이것이 바로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유혹을 받으라: “그러므로 그가 사람 같이 되시는 것이 합당하니라.
형제들에게...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가운데 그들을 도우실 수 있느니라
유혹을 받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어. 2:17, 18.

이 시나리오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예수님의 내적 갈등을 생각해 봅시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물러서지 않는 한
사랑에 있어서도, 가장 큰 고통에 직면해서도 인간의 타락한 인간 본성에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일”합니다. 16:26.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돌아가라. 하나님의 뜻과 인간 본성의 뜻 사이에는 뚜렷한 대조가 있습니다.
타락한.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기부하는 대신 자신을 보존하십시오. 생명을 주는 대신 생명을 유지하라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고난의 길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길일 때 물러가라.
사랑과 상충되는 이기적인 행동을 특징으로합니다. 그리고 인사말
율법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희생을 피하는 것
법을 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요일 3:4). 따라서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스스로 담당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손에 못 박히는 것을 거부하심 - 아버지께서 정하신 희생에서 벗어난 것
우리를 구하는 것은 죄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참여하심으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에 동참하게 될 것이며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각.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끌려 미혹되는 것입니다.
색욕." 이모. 1:14.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욕망"은 또한 자신을 보존하려는 욕구이기도 합니다. 원하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을 고통과 수치, 조롱에 노출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의 아들
하나님은 이런 갈망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지배하는 것은 그분에게 달려 있었고 그분은 우리의 본성상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타락하사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내가 마시지 않아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마태복음 26:42.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양으로 오셨다.
죄의 육신”(롬 8:3)이 되어 우리 육신을 취하시고 그것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온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느니라.” 여자. 5:24. 처럼?
그들은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쳤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뿐이니라
내 안에 산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20.

여기서는 빛의 또 다른 측면을 노출시키기 위해 작은 괄호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희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분석한 결과, 우리는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신 “욕심”이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되는 것처럼 물질적인 것과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신성한 표준의 높이와 영광을 봅니다.
성격의. 정욕의 유혹을 이기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할지니라.
너 자신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마 16:24). “그리고 누구든지 그의 것을 가져가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루크. 14:27.

이러한 이해에 비추어 볼 때, 사도 바울의 말은 그의 서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된 의미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분은 죄로 말미암아 육신에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우리가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 행함이라”(롬 1:1). 8:3, 4. 즉,
우리가 죄와 맞서 치열하게 싸워야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이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인간 본성, 우리의 육체. 예수님께서도 이런 일을 당하시고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다투며 육체의 모든 악한 욕심을 이기고 조화롭게 살며
하나님의 뜻. 이렇게 하신 후 “육체에 죄를 정하”셨습니다(롬 8:3). 즉,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온 우주에 선언했습니다.
인간의 육체에서도 그것은 불법이고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모든 사람의 손에 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믿음의 손으로 하느님의 능력에 매달리는 남자, 여자, 어린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의 힘을 붙잡고 화평하게 하라”고 초대하십니다.
나랑; 그래, 나와 화해하자.” 이사. 27:5.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인간이 되셨고 내적 갈등과 갈등을 극복하셨는지 연구했습니다.
죄에 관한 외부적인 것. 이제 우리는 그분의 사명의 최종 목표를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심과 같이 우리로 죄를 이기게 하려 하심이라.
저장되었습니다. 이 작업은 다음 장에서 수행하겠습니다.

제14장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사신다

바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으니”(딤후 1:10)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폐하셨다고 하여도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당신이 원하지 않는 한 당신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믿음 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할 것입니다.
복음.

다음으로,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죽음을 폐하셨을 뿐 아니라 “…
삶". 그분의 일은 우리의 과거 죄값을 치르는 데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진행했습니다 -
사람들에게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요한 1서
3:4. 우리가 용서받을 때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ROM. 5:5. 그리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롬
13:10). 그러므로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사랑 가운데 걷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계명을 지키든지, 죄 없이 살든지. 누구든지 진실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리고
“그 안에 거하고 죄를 짓지 말라”(요일 3:6).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고
죄; 왜냐하면 그분의 씨가 그 사람 안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을 수 없으나 이는 그가 나심이라
하나님." 요한1서 3:9.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이 사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 있느니라.” 요한1서 5:11. 삶"
우리에게 제안된 것은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는 존재하는 동안 살았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여기. 바울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살아있어, 아니
더 많은 것이 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갈. 2:20. 그분의 생명을 갖는다는 것은 그분의 갈등과 유혹에 대한 승리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경험상.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도 그와 마찬가지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키러 오셨습니다.
죄. 그리고 우리 안에 사심으로써 그분은 그분의 사명을 완수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어난 타락한 인간의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상태로 변화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의 순간에는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기적
성경에서는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더 나은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과 함께 다음 그림으로 설명됩니다. 첫번째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회심하지 않은 육신적인 인간과 비교합니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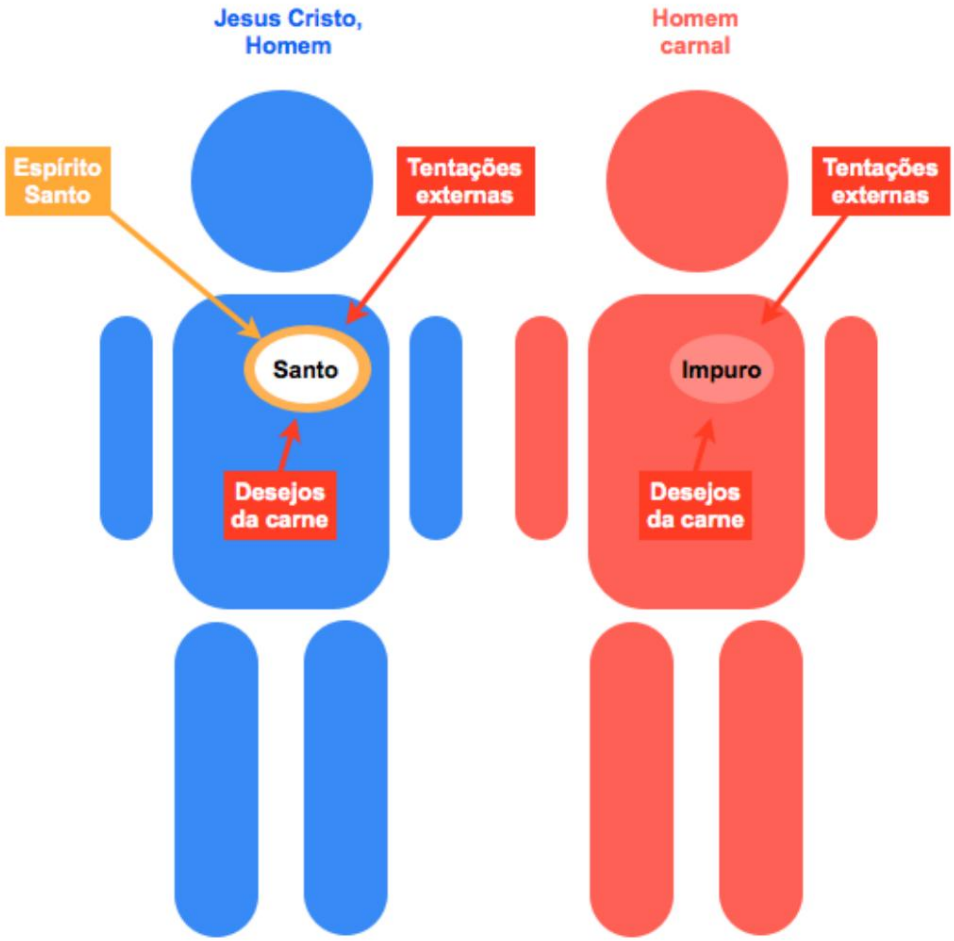


그림: 인간 예수 그리스도와 회심하지 않은(육신적인) 인간의 비교

예수 그리스도는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청색은 덮개인 에봇의 색깔이었다
대제사장의 예복을 입었고 율법에 대한 그의 일치를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는 에봇 받침도 전부 청색으로 만들되" 엑소. 28:31.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푸른색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다(시편 97:6). 그리고 정의는 차례로,
"주의 계명은 다 의로우니"(시 119:172)라는 계명과 일치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의 상징인 붉은색으로 표현된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다
이사야에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1:18. 그 남자
육욕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타락한 인간의 주요 차이점은 마음에서 발견됩니다. 의
예수님은 흰색으로 표현됩니다. 성경은 죄가 있을 때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정결케 되면 그들은 “양털 같이 희어질” 것입니다. 1:18. 요한은 하늘의 군대를 보았다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희고 깨끗한” Apoc. 19:4.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은 순수했고,
죄의 흔적도 없고 죄에 대한 성향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부로부터 성령의 도움을 받으셨는데, 이는 그림으로 표현됩니다:
그분의 마음을 덮고 있는 금반지를 위해. 선지자 스가랴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두 금관 옆에 있고 그 두 관에서 흘러나오는 두 올리브 가지
황금 기름?” 하늘의 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요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자” 슥. 4:12, 14. 관유의 의미를 설명하면,
그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4:6. 영형
하느님께서 부어 주신 성령은 유혹에 맞서는 방패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유혹에 성공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보호 또는 힘. 마음이 깨끗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로워지지 않은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그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해를 입기에 완전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너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야
그림에서는 금색 보호 링이 없는 것으로 표시됩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을 때, 다음과 같이 “거룩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지상에 오시는 흠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그의 마음은 고통받았습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외부 유혹의 압력(마 4:1), 세상의 매력(마 4:8, 9), 다른 사람의 도발(눅 23:39); 그리고 그것도

자신의 육체의 욕망이나 정욕에서 비롯되는 내적 유혹입니다.
(그의 “나”) 이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정욕”(야고보서 1:14)과 예수님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15. 을 위한
위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그분께서 겟세마네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시다.
나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이로소이다”(누가복음 22:42).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 그분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의지하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의 도움으로 그분을 보호하셨습니다.
악에 대항하는 마음. 그분은 “그의 육체에 계실 때에 큰 소리로 제물을 드리시며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눈물과 기도와 간구를 올렸더니 들으셨느니라...
얘야, 너는 네가 겪은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히브리어. 5:7, 8.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시니라”(히 1:1). 4:15; 그렇게 남아
그분이 지상에 입성하셨을 때, 그분의 지상 생활 전체에 걸쳐 거룩하셨습니다. 그분은 사역을 마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가까이 오나니 그는 나와 관계할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요 14:30). 그리고 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신 것처럼 죄로 인해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자기를 드리셨으니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 없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9:28.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예수님과 달리 육신에 속한 사람은 타고난 성향 없이 태어납니다.
악에 저항하십시오. 우리는 타락하고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라"(요 3:6)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체를 따르는 자들
육신의 일을 좇는 자들이라... 육신의 성향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실제로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ROM. 8:7, 8. 우리는 육체에 속해 있습니다. 얘기할 때
사도는 "육체의 성향", 곧 "자기"의 성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고 나쁜 습관을 통해 획득되었습니다. 폴도
로마서 7장 5절에서는 "욕심"으로 묘사합니다. 사전에 따르면 열정도
지배적인 습관이나 중독. 로마서 본문의 의미는 타락한 인간이다.
그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을 사랑하며 태어났고, 이 열정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삶
예수님께서 사셨던 영적인 삶은 이것과 정반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일을 하려 함이 아니요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라." 요한복음 6:38.

마음이 오염되면 사람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부정해집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왜냐하면 마음속으로부터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란과 살인과
도둑질, 탐욕, 사악함, 사기, 해산, 시기, 훼방, 교만,
광기. 이 모든 악은 모두 속에서 나와 사람을 오염시킨다." 마가복음 7:20-23.
예수님은 이 구절에서 도덕적 오염을 언급하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좋아하면
당신의 마음은 "도덕적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즉 그는 범법자가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사람의 몸 전체가 그림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불결한 마음은 몸과 마음, 즉 존재 전체를 더럽힙니다.

더욱이 육신에 속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도덕은 내적인 영향, 즉 육체의 욕망의 결과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격 특성에서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획득한 특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썼습니다.
2:3. 다윗은 유전받은 죄 경향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조되었고,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느니라." 시 51:5. 그리고 영향과 관련하여
외적으로 바울은 회심 이전의 인간의 현실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으며...왕의 말대로 이 세상 풍속을 좇아"
공중의 권세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의 권세니라 사이에
전에는 우리도 다 이 일을 행하여 우리 육체의 원하는 대로 행하여
육신의 뜻과 생각의 뜻" 2:2, 3. 간단히 말해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는
우리는 악을 행하기 쉬우며(육신에 속한 자임) 저항할 힘이 없나니
유혹.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인간이 성령의 작용에 자신을 맡길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음 그림에 나타난 신.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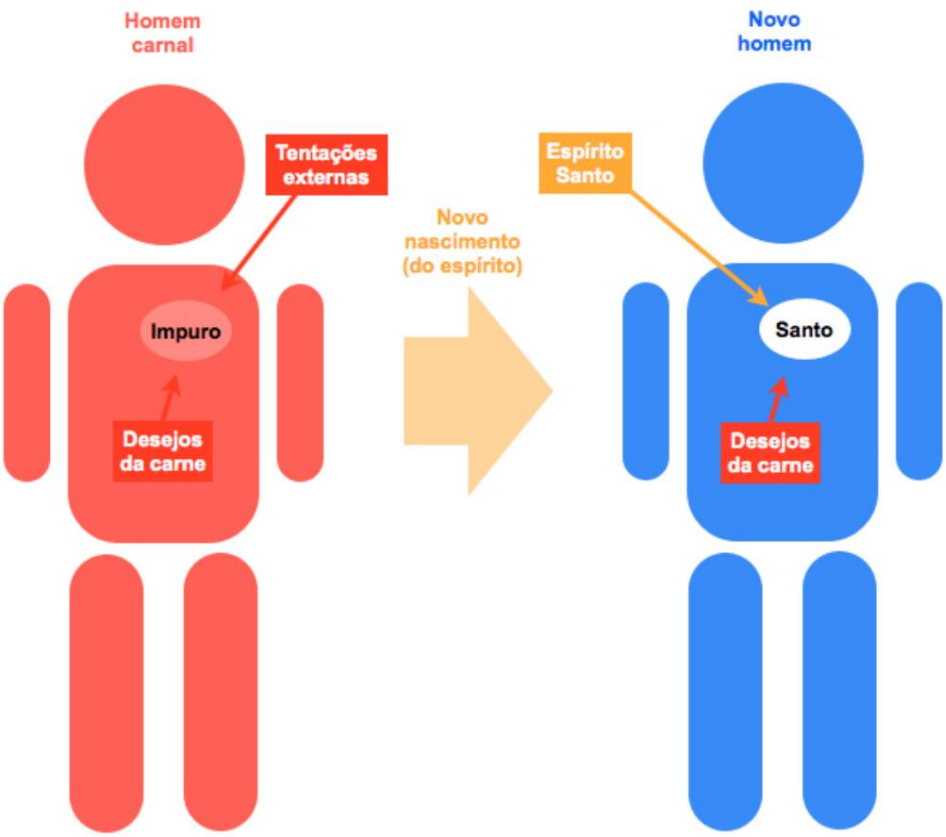


그림: 비교 맨 채널 x 변환

인간이 하느님의 성령의 감동을 저항할 수 없을 때, 그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됩니다. 그는 그분의 뜻을 행하려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퍅케 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7, 8. 성령은 그 사람에게 거룩함을 심어 줍니다. 그리하여 마음이 순결하고 거룩해지며,
즉, 자신을 악으로부터 분리시키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그림에서 변화로 표현됩니다.
색상 - 빨간색에서 흰색까지.

바울은 영이 마음의 성향을 변화시킨다고 말합니다.
남자: "육신의 생각은 죽음입니다. 오직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그럴 수도 없느니라...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영에 있느니라"(롬 1:1).
8:6, 7, 9. 이 과정이 새로운 탄생이다.

새 시대 이전과 이후의 인간 상태의 차이점을 설명하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은 영이다." 요한복음 3:6. 영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도록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율법. 예수께서는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영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63. 그리고 바울은 "율법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덧붙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고 영을 따라 행합니다." ROM. 8:4. 모세는 이것을 묘사했습니다.
현실을 더 간단한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은 네게 할례를 베푸실 것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을 것이다." 신명기 30:6.

그리고 마음이 새롭게 되면 온 사람도 새롭게 됩니다. 참조
마음을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씻은 사람은…
깨끗하다" 요한복음 13:10. 이 변환은 그림에서 색상의 변화로 표현됩니다.
남자 - 빨간색에서 파란색까지, 법의 색입니다. 한때 죄인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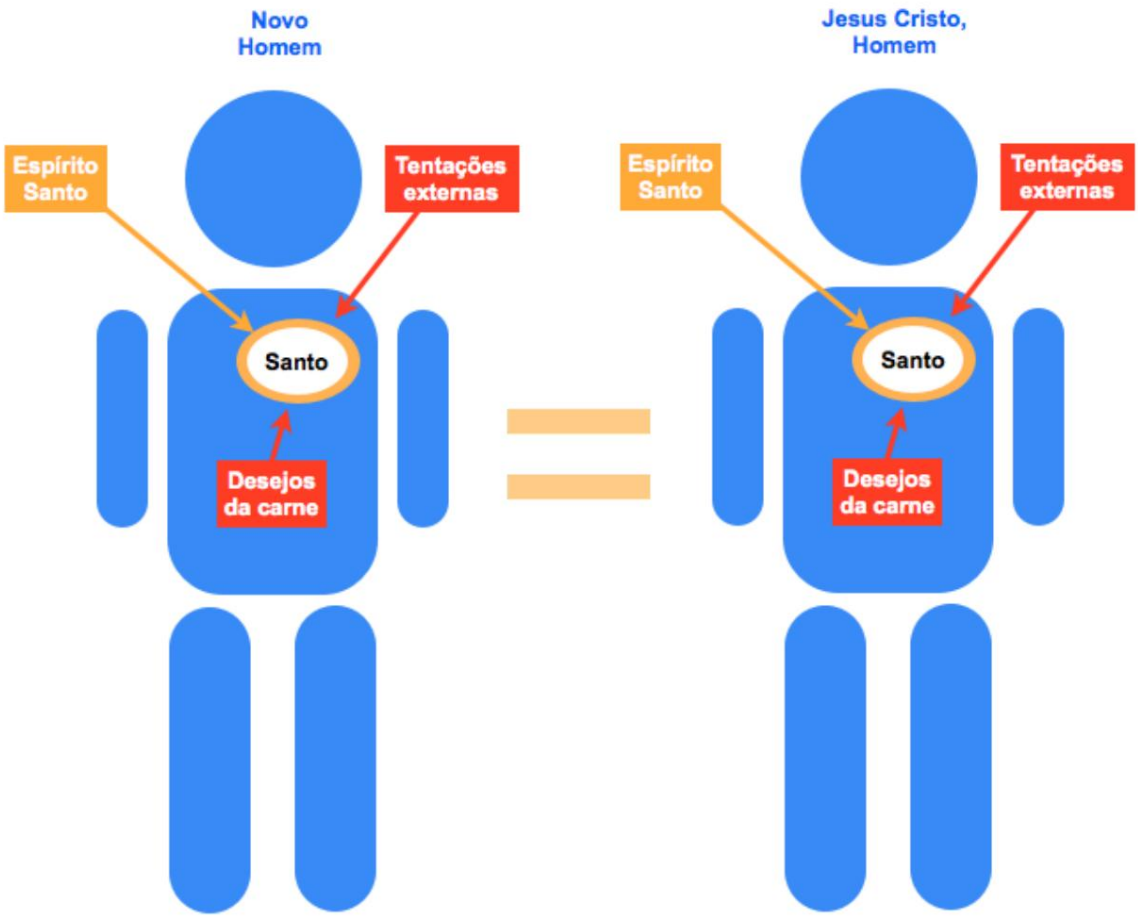
바울은 인간의 마음과 전체에 나타나는 이러한 변화를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되어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프. 4:23,
24. "거룩"하다는 것은
악을 멀리함과 관련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신성화; 음행을 멀리하라"(살전 4:3). 즉,
회심하고 거듭난 사람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심어주신 소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악에서 떠나라. 그러므로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은
(엡 4:24), 죄의 길을 피하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사람
생물은; 오래된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모든 일이 다시 이루어졌느니라." 고린도후서 5:17. 그는 행동한다,
악에 관해서는 천국에 사는 사람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거룩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심어진 사람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입니다(베드로후서 1:1).
1:4). 하나님의 말씀, 즉 "신성한 씨"가 그의 영혼에 심어졌습니다(요일 3:9).
이로 인해 그 안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거룩함과 자기 육체의 정욕을 따르나니 이는 계속해서 으뜸가는 자니라
당신의 마음. 그분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형태로 주어지는 신성한 도움으로 그들을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성령을 주신다. 그러므로 개종한 사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다음 그림에서는 성령의 부어짐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성자, 인간은 효과적으로 싸우기 위해 예수와 같은 위치에 놓이게 된다.
죄에 대하여:

그림 - 예수 그리스도와 개종한 사람의 비교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이 청결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세상에 오시는 흠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지구.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은 하얗게 보입니다. 타락한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다
부정하지만 그와 예수 사이의 이러한 차이는 성령으로 인해 보상됩니다
그가 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정화됩니다. 피터가 말했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하나님께서는 새로 개종한 로마인들의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행 15:9). 당
이것이 그의 마음이 하얗게 된 것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이사야. 1:18.

이 결론은 다른 추론을 바탕으로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폴
늘 정결한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을 성령님으로 소개합니다.
그분은 그분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있느니라
자유함” 고후 3:17. “영”이 된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영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사도행전).
2:38);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나실 때부터 거룩하셨다 - 천사 자신이 선언한 바와 같이
누가복음 1장 35절에 “ 너희에게서 나실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
타락한 사람은 어머니의 자궁에서 “육체”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태어나면 ,
거룩한 그리스도의 영을 받습니다. “회개하여 각각
죄 용서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여 ” 행 2:38. 그러면 그는 영적인 사람인 “영”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라.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6.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그 사람 안에 심어지느니라.
바울이 말했듯이: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입니다.” 에프. 4:24. 예수님은 “성령의 성향”을 소유하셨습니다.
그분은 성육신된 이후로 영적이고 거룩한 존재로서(고후 3:17; 누가복음 1:35) 성육신하신 이후로 하나님의 율법과 함께 “평화” 가
운데 계셨습니다(롬 8:6,7). 신령한 율법과 일치하였느니라
(롬 7:14). 인간은 한때 “적의”인 “육체의 성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분의 법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단 변환된 후에는
성령도 영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 남자는 감옥에 배치됩니다.
예수님께서 유혹에 직면하셨을 때와 같은 입장 - 악과 싸우심
“깨끗한” 마음에서 출발하여 영의 성향, 즉 욕망과 힘을 갖는 것
순종하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우리는 바울이 쓴 본문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느니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ROM. 8:9. 남자라면
하나님의 영의 활동에 저항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의 순결과 거룩함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그분의 아들로 인정하십시오.
즉, 신성한 DNA, 즉 “신성한 씨앗”이 사람에게서 보입니다.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인간 아들 사이의 유사성. 그러므로 인간은 다음에 속한다.
가족.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할 때 우리가 신성한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을 압니다.
같은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ROM. 8:16. 또는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양을 통해 그분께 속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감동시키십니다.
우리는 그분에 의해 그분의 자녀로 인정받고, 그분의 보살핌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회심한 사람의 마음을 비교해 보면,
이제 유혹에 맞서 싸우는 두 사람의 투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자가 구걸할 때
하나님,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을 보내어 당신의 마음을 보호해 주십니다.
내외적인 유혹에 맞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이기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의 심장 주위에 금빛 반지가 있는 모습이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당신의
경험은 예수님의 경험과 동일합니다. 마음은 영에 의해 정화되고 무장됩니다.
거룩하고 악에 대항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런 상태에서 승리하셨으니 분명한 것은
남자도 이긴다.

바울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성령과 맞서 싸우실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면 그는 항상 승리합니다. "성령을 좇아 행하라.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느니라
고기; 그리고 이 둘이 서로 반대되므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자. 5:16, 17.
그는 육체의 "탐욕"으로 표현된 욕망은 반대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영"이 우리 영혼에 심어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영이 반대하여 행동한 결과
육체는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즉,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육체의 의지, 자아의 의지.

하지만 우리가 대피소를 "선택"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혼이 심어준 욕망.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영 안에서 행하십시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걷기'에는 선택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그냥 걷는다
우리가 원한다면.

갈라디아서에 제시된 가르침은 갈라디아서에 주어진 가르침의 반복입니다.
로마서: "너희 지체를 죄의 무기로 드리지 말라.
부정; 오직 너희 자신 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죄의 종이더니
너희가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리고, 그로부터 해방된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에게 종이 되었으니... 너희 지체를 드린 것과 같이
더러움을 섬기고 악을 악으로 섬기느니라" – 과거에는 회심하기 전
- " 이제 존재합니다 " – 개종 후 – "여러분의 회원들은
의로움으로 거룩함에 이르느니라." ROM. 6:13-19.

갈라디아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사도가 이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니"라고 말할 때,
법적의." 여자. 5:18. "안내"라는 용어는 당사의 자발적인 동의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단지
그렇게 선택하고 허용하는 "인도"; 그리스도께서 그를 인도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다음으로 Paulo는 이 경험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설명합니다.
옛 육체의 일과 현재의 일을 비교하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것은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경쟁과 분냄과 싸움과 분쟁과 이단과 투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폭식과 그와 같은 일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전과 같이 말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열매는
영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정욕.” 여자. 5:19-24.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은 육체를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당신의 나쁜 욕망을 죽게 만드십시오. 이것은 회심한 사람이 선택할 때 가능합니다.
영이 당신의 영혼에 심은 순수한 욕망을 충족시키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다음과 같은 것을 준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육체의 욕망을 굴복시키도록 허락하십시오. 그 다음에,
영이 육신을 이깁니다 . 그러므로 “그들은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합니다.”
ROM. 8:1. 순결하게 행하는 사람은 결코 악인으로 정죄받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걷는가
십계명의 율법을 순종하면 그 율법으로 정죄 받지 아니하리라
위반자. 바울은 이 진리를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합니다.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 5:18.

성령은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서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타락한 남자. 첫째는 깨끗하지 못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다시 창조 하는 것입니다 .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와 같이 순결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눈에 띈다
그림으로 보면 그리스도와 사람의 마음이 모두 흰색으로 보입니다. ㅏ
둘째는 청결을 지켜 육체의 욕심을 거스르고 그것을 이기 느니라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는 반지로 표현됩니다.
당신의 심장 주위에 황금 방패가 있습니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와 개종한 사람의 이미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그림 에서 그와 개종한 사람이 승리를 거두는 방식이 주목됩니다.
유혹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 구주께서는 사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고 되어야 하는 것의 모범이십니다.
땅에서 의와 거룩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우리를 둘러싸시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고난을 참으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므로 다음을 고려하십시오.
그는 죄인들이 자기에게 이같이 반항하는 일을 참으셨으니 이는 자기가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당신의 영혼이 약해지고 기절합니다. 너희는 아직 피 흘리기까지 저항하지 아니하였고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주장하는 권고를 잊었습니까?
너는 어린아이와 같이 너와 함께 하노라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당신이 그분에게서 책망을 받을 때;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것을 징계하시고 의인을 채찍질하시나니
아들을 위해 무엇을 받든. 당신이 징계를 견디면 하나님은 당신을 자녀처럼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징계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모두가 참여자가 된다면 너희는 개자식이지 어린아이가 아니다. 게다가 우리는
육신으로는 우리 조상들을 징계하시고 우리는 그들을 공경하게 하셨나니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 안에는
사실, 잠시 동안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시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의 유익은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현재 모든 교정은 기쁨의 교정이 아니라 기쁨의 교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그것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흐트러진 무릎을 일으켜 곧은 길을 만들어라
네 발을 위하여 이는 절뚝거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히 길을 잃지 않게 하려 함이니
치유되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데
너희는 삼가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고 쓴 뿌리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튀어나와 너희를 방해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리라. 그리고 아무도 방자하게 행동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마치 음식 값을 받고 장자권을 판 에서처럼 불경스러운 사람입니다. 왜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는 축복을 상속받고 싶어도 상속받지 못해서 버림받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곳을 찾았습니다. 왜 안 왔어?
불이 붙은 유형의 산과 흑암과 흑암과 폭풍우와
나팔 소리와 말씀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구하여 이르기를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명령한 것을 견디지 못하였음이라. 짐승이라 할지라도
산에 닿으면 돌로 맞거나 창으로 넘어질 것이다. 그 광경이 너무 끔찍해서,
모세가 이르되 내가 다 놀라고 떨느니라. 그러나 당신은 시온 산에 오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과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보편적으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로
모든 것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에게 있도다 그리고 새 나라의 중보자이신 예수께
언약과 뿌려진 피라 이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것이니라

당신은 말하는 사람을 거부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왜냐하면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한 것을 거절하였으니 하물며 우리가 만유의 주를 배반하면 우리도 그러하리라
하늘에서; 그 당시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시켰으나 지금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나는 다시 한 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은: 다시 한번,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만들어진 것 등 움직일 수 있는 것의 변화를 보여줌으로써 움직일 수 없게 된다.
유지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굳게 잡자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경건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깁니다." 히브리어. 12:1-
29.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하게 사는 법을 배웠으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와 같은 경험에 참여하는 다른 참가자들을 위한 목적입니다. 영형
다음 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 - 그분의 재림을 위한 전제조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으니 " 디모데후서 1:10

성경은 일곱째 나팔과 마지막 나팔 소리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계시록: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후에,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휴거되리라" I Thess. 4:16, 17.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신비: 사실 우리는 모두 잠잘 것이 아니라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기 전, 눈 깜짝할 사이에 ; 나팔소리가 울릴 것이기 때문이다.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로다." 고린도전서 15:51, 52.

"그러나 일곱째 천사의 음성이 나는 날 그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Apoc. 10:7. 바울은 그 비밀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구성원의 품성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계시이시다.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중에서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
너희는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 1:27. 일곱째 나팔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울릴 것입니다.
그분의 교회에 계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길의 소리로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분의 교회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오실 것입니다.
찾아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자기 앞에 드리시고 교회로 세우셨으니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영광스럽고 점이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느니라.” 에프.
5:25-27.

그리스도의 성품은 그분이 사람 안에 사실 때 경험에 따라 형성됩니다.
우리가 이전 장에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사람이 그분을 만난 후에 일어납니다.
그를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다(요한복음 1:14).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함께 공부해야 합니다.
그분을 찾는 유일한 목적, 그분에 대해 아는 것, 즉 그분이 누구셨고 현재 계시며,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아는 것
우리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곧
나를 증거하라” 요한복음 5:39. 그러므로 “우리에게 알리고 계속해서 알게 합시다.
선생님; 그의 출발은 새벽처럼 확실하다. 그리고 그분은 비처럼, 비처럼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땅을 적시는 날이니라.” 호세아 6:3.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비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20. 이
책은 이 여정의 첫 번째 자극이 되며, 당신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분의 학습.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찾으려는 유일한 의도로 진심으로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그들은 그분의 영을 발견하고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하는 자가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마 7:8).
그러면 그분은 그들 각자 안에 사실 것이고, 교회는 그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나는 돌아왔을 것이고, 이 책을 쓰는 것은 전혀 불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안 되지?
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 유익을 얻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갖고 있는 것처럼, 독서를 통해 그분을 찾으십시오.

예수께서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자
12:32.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계시와 그의 희생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진리를
참여하면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끌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
당신의 눈과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책,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축복을 받을 기회: 그것을 나누십시오. 누구에게나 선물하세요
책을 사랑하거나 빌려서 읽도록 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십시오. ㅏ
그리스도의 계시는 복음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매트.
24:14. 따라서 이 책과 메시지를 반드시 홍보하고 전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가운데 드러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재촉”하게 될 것입니다(베드로후서 2장). 3:12.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총독을 세워 그 사람을 섬기게 할 자가 누구뇨?”
당신의 시간에 생계를 제공합니까? 주인이 주인을 섬기는 그 종이 복이 있도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자, 너도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을 보아라." 마태 24:45, 46. 우리는 충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세상을 전파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참된 영적인 음식 곧 그리스도의 계시가 무엇입니까? 천국이 기다린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